AUG 2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05 1982년 8월 1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ugust 19, 1982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③

황혼에 젖은 밴프공원의 보우호숫가 김명선촬영.

◆카메라 하셀브라드 500. 80mm. Focus 5; 6~1/60초→ 이사진을 포함 럭키산 절경들이 오는 20일7시30분 삼우스투디오에 서 시사된다.

여권수수료 인하

환률인상으로, 거주여권은 동일

이민여권을 제외한 모든 여권수수료가 18일부로 인하됐다.

종전에 해외공관에서 발급하던 이민·유학여권을 제외한 모든 여권의 수수료는 60달러(미화)였으나 18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의 수수료는 단수및 유학 $15, 이민(거주) $20(변동없음), 복수여권 $40로 됐다.

종전까지는 미화대 원화환율 500:1로 계산, 일반여권을 $60씩 받았으나 현재 환율이 700:1을 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약 $40정도에 불과했었다.

또 이번 개정에서 81년8월31일 이전에 받은 유효기간이 84년이후까지인 여권은 새 여권으로 바꿔주고 정상 수수료의 반액만 받기로 했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여권담당 박종선부영사는 17일 "여권법개정으로 신규여권발급에 혼란이 오고있으나 정부는 될 수 있는한 교민들의 편의위주로 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여권신청은 지난 7월31일까지였으나 한국정부는 오는 8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권업무를 문답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답식으로 풀어본 여권법개정 해설

◉신규여권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

81년 10월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여권을 소지한자는 전부 해당된다. 단, 외국시민권자는 한국국적이 상실됐으므로 이에 해당 안된다.

◉여권수수료는 어떻게 바뀌었나?

해외공관의 여권발급업무의 주종을 이루는 거주(이민)여권은 종전과 같이 미화 $20(캐나다 $24)로 변함없고 기타여권은 대폭 인하됐다.(기사참조) 단, 81년8월1일~9월30일까지 발급된 여권은 무료이다.

◉여권의 기간이 살아있고 곧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다. 신규여권을 신청해야 되는지?

여권의 목적은 여행(외국)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신분증명 두가지이다. 시민권 취득전 외국여행(한국방문 포함)을 하려면 신규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단, 현여권의 유효기간이 84년 이후까지 살아 있으면 수수료는 반액으로 신규대체된다.

◉구여권을 소지하고 한국을 여행하려 한다. 가능한지?

가능하다. 정부는 신규여권 신청기간을 83년말까지 늘렸다. 그러나 구여권의 효력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간주, 세계각국의 출입국관계관에 통보했고 한국도 입국만 가능하다. 출국하려면 한국 외무부에 신규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신규여권 신청방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는 해당공관에서신청관계서류를 받을 수 있다. 양식을 작성한 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실증명(영주권 또는 이민국비자)등 서류첨부, 신청하면 약 2주정도 걸린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64 BLOOR ST. W.
(Bloor & Bathurst)

이병영 통일원차관 통일문제 강연

김일성 사후 변화가 주목거리
경제발전 해결열쇠는 통일

한국정부는 90년대에 예상되는 북한측의 3대 변화에 대비, 장기정책을 수립중이라고 이병영 통일원차관이 말했다.

17일 하오 토론토 다운타운 홀러데이·인에서 열린 "80년대 남북현황과 제5공화국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의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는등의 통일문제를 토론토 교민들에게 해설하기 위한 「토론토지역교민통일연수회」에서 강사로 나온 이차관은 3대 가능성을 "90년대에 들면 북의 김일성은 늙어서라도 죽을것이며 1)그후 후계자 김정일의 신격화, 절대권력 구축은 의문시된다, 2)김일성의 절대 카리스마가 사라지면 급진적 합리주의가 야기된다, 3)각료와 군부가 합작, 집단지도체제가 수립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차관은 질의응답에서 "대를 이어서라도 남반부통일을 완수하겠다"는 김일성의 기본태도도 그가 죽으면 변질될지도 모른다고 부연하여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긴장이 완화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보통 이제까지는 김보다는 후계자 김정일이 더 호전적, 김이 죽으면 북의 남침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우려됐었다.

이순천 부영사 사회로 열린 이날 모임은, 이상훈 총영사의 남북한 현황과 남북관계의 역사적 회고담에 이어, 강사 이병영 통일원차관, 수행원 김훈기 평화통일운영국장, 김명수 평통담당관 인사소개가 있은뒤 이차관의 강연,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차관 강연요지

남북한 평화통일의 민족지상과제를 80년대에 못 이루면 남북은 결국 남남간의 영구분리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통일을 내세울 명분조차 사라져 우리가 있어 한국정부는 78년 남북경제협력기구 설치를 제의했고, 79년에는 책임있는 기관끼리 무조건 대화를 갖자고 제의했다. 특히 81년1월12일 전대통령은 평양측 김일성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부담 없이」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또한 김일성이 하시라도 초청을 하면 자신이 북을 방문하겠다고 말했고 다시 81년6월5일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의 거부반응으로 성의있는 우리측 제의는 실현을 못보곤 하였다.

통일의 필요성-1)1천만 이산가족의 쓰라린 고통의 해결(가족상봉)

2)경제개발-빈곤한 기술및 자원의 공동개발로 경제성장 촉진

81년도 남한의 GNP(국민소득 1인당) $1천5~6백에 비해 북한은 절반인 $700~750에 불과.

3) 군사비 과잉출혈(남:근$40억, 북:$30억) 해소로 평화산업·경제호전 초래.

금년도 한국정부의 민주화 민주통일방안은 1)평화정착(군사대결 해결), 2)민족화합·교류 3)6천만 총선거 실시

다시 말해 평화방법에 의한 민주원칙하의 통일추진 4)남북한 민족협의체 구성으로 이상적 「통일헌법」을 마련, 6천만 국민투표로 가결 5)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 설치.

한편 북한측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1)주한미군(3만8천) 철수, 2)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3)현 남한정부가 물러나고, 공산활동이 합법화되어야 협상에 응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남한측은 1)60년대부터 통일방안 제시, 2)70년대에는 대화제의, 3)8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북이 당면한 난관은 1)정치적 문제로 고립된 폐쇄적 입장을 취하고, 2)경제적 문제로 경제침체, 자원빈곤에 허덕이면서도 군사비 과잉충당으로 출혈이 파중된다, 3)권력세습에 따른 반발·유형 무형의 저항의식에 직면하고 있다.

강연후 질의응답에서 이차관은 "북한은 병영사회·전시체제로 총예산의 20%를 군사비로 돌리고 있다.

김의 남침을 막는 길은 1)한미방위조약을 돈독히 하고, 2)국내 정치안정도를 굳게 하며, 3)경제신장을 이루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포들의 북한방문에 언급, "최근 전대통령이 공산권 해외교포의 한국방문을 받아들이고, 신변보장을 하겠으니, 북한측도 문호를 개방하라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아야겠으나 교포들의 북한방문은 북의 역선전에 이용될 우려(피해)가 흔히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를 요망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국내의 정치적 민주화가 남북통일 대화에 선행돼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범·종교인·학생들은 석방하고, 한국민주화를 실현한 후에 남북간 통일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민족화합을 위해 정치범등은 우선 개전의 정이 짙은 사람부터 석방하고 있다. 국내정치가 안정된다면 대폭 석방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강사 이병영 차관 약력: 55년 경기고 졸, 61년 미국 제임슨칼레지및 64년 동 플라대학서 석사학위, 67년 통일원 경제정책 담당관, 74년 동 조사연구실장, 80년 통일원차관』

◆강연하는 이병영차관.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강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당첨을 축하합니다>

저희 체육대회 복권에 당첨되신 분은 8월24일(화) 오후2시~7시 사이 체육회사무실(미도파3층)로 나오셔서 직접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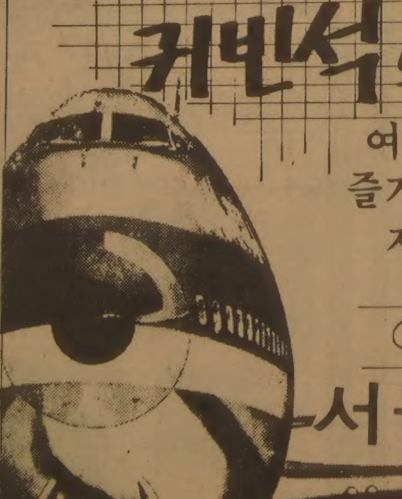
단, 신문지상에 당첨번호가 발표된후 1개월이상 지체시는 체육회 기금으로 당첨상품을 기증한것으로간주하겠읍니다. 금번 체육대회 결산보고서는 정리후 곧 발표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 캐나다체육회 회장 이 병권

체육대회 경축 복권당첨 번호

등수	인원	내 용	제공자	당첨
1등	1	서울왕복비행기표1매	서울여행사(최동주)	3523
	1		신세계여행사(김창범)	2556
2등	1	부리태니카백과사전집30권	463-7423(송 영)	[illegible]
3등	1	대형전자올겐1대	체육회제공	1158
4등	1	WHITE FOX목도리1장	미도파백화점(장추신)	3520
5등	1	보약1제 600불상당	아세아한약방(조지성)	2821
6등	1	골프 셋트	루나미트로피(이기윤)	0533
7등	1	ROCKING CHAIR	에코시가구점(김만구)	3472
8등	1	카메라	킴스카메라(김춘타)	2394
9등	1	TV	(박광철)	2809
10등	1	신문영구 구독권	민중신문(정철기)	2873
	1		코리언저널(유영린)	0431
11등	1	크리스찬디올 선그라스	블루어안경(구진모)	0324
12등	1	다우젠트 아일랜드 버스 [illegible]	제일여행사(유지원·신용곽)	2553
13등	1	[illegible] 약주	미세루선물센타(김영철)	3416
14등	1	TRAVEL BAG	체육회총무이사(조충민)	1593
	1			3549
15등	10	손목시계 각1개씩	Y&Y TRADING (유웅근)	0206 0234 0363 0403 2248 2249 2522 2857 2865 3675
16등	10	고급시계만년필 1개씩	체육회 제공	0208 0292 0370 0568 1744 2262 2585 2849 3590 0301
17등	10	CAR WATCH 1개씩	체육회 제공	0295 0296 0385 0425 1784 2286 3497 3511 3599 3642
18등	5	포켓용계산기 1개씩	체육회 제공	0326 1722 2273 3493 2243 3495
19등	7	쌀 20KG 1포씩	PAN-ASIA(이창복)	0219 3640 0458 1736 1741 2220 2291 2819
20등	9	쌀 25Lb	한국식품서부지점	0422 1575 1733 2709 2810 3484 3547 3697 3700

커빈석으로 모십니다!
여러분의 便安하고
즐거운 旅行을 위해
저희가 있읍니다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SEOUL TRAVEL
631 A BLOOR ST. W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스라엘군 베이루트 철수

침략 73일간 숱한인명 죽여

(베이루트=레바논)서베이루트에 침입한 이스라엘군이 73일만에 포위를 풀기 시작했다.

아리엘·샤론 이스라엘 국방상은 17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철수문제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24시간내에 드러날 것으로 보며, 이에 대비해서 우리는 철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PLO간의 조정역을 맡아온 필립·하비브 미국특사가 18일중 양측의 최종 합의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TV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을 희생당한 레바논의 사에브·살람 전수상도 "협상의 끝이 목전에 보인다"고 말했다.

서베이루트에 주둔, 그동안 이스라엘의 포위를 받아온 7,100명의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6,000명의 시리아 정규군등이 철수하는 방법등 구체적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의 고위관리는 이스라엘군 철수조건으로 PLO가 이스라엘 스카이호 전투기조종사 아론·아히아즈및 78년 90일간의 레바논 침공에서 전사한 9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의 시체를 송환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 아히아즈는 이번 레바논 침공 첫날 추락했다.

모나캄·베긴 이스라엘수상은 국제적십자의 레바논 난민을 위한 구호물자보급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이스라엘군들은 적십자구호단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십자원이 전했다.

"슬픔에 종지부"

레바논수상 밝혀

"우리의 슬픔이 오늘에야 비로소 문서로서 종지부 찍는다"

샤피끄·와잔 레바논 수상은 17일 미국과 팔레스타인파의 최종 협상을 끝낸후 이렇게 말했다.

PLO를 주둔시킨 레바논은 지난 66일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많은 무고한 재산, 인명피해를 받아왔다.

한국일보
533-2361

◆미시사가한글학교 여름캠프참가자들의 기념촬영.

태풍 세실호 피해 커

18명 사망·31명 실종

태풍 세실호의 영·호남 지방에서 15일밤 0시현재 (한국시간) 모두 18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실종됐으며 5백7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태풍 폭우로 남부지방에서는 농경지 1만8천헥타르가 침수됐고 전물 1백18채가 전파 또는 반파됐으며 도로등이 유실됐다.

경남 산청군은 4백40미리의 강우량을 기록 최고의 폭우가 내렸다.

중공, 대대적으로 반일 캠페인벌여

(북경)중공당국은 일본정부가 교과서왜곡사실에 대한 해명사절단을 파견한 다음날부터 대대적인 반일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다.

중공의 신화사통신은 14일 일본이 중국대륙침범당시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 한 예로서 북경의 철강소에서 3만여명이나 학살했다고 폭로했다.

중공은 지난 2주전부터 일본교과서 왜곡사실을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미시사가 한글학교 학생수료증

개교 4주년만에 거의 1백명의 학생을 확보한 미시사가한글학교(교장 문가자)가 7월5일부터 30일까지의 여름학교를 끝냈다.

미시사가지역의 한인인구가 급작히 팽창, 학생수가 작년의 3배로 늘은 미시사가여름한글학교는 또 7월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의 여름캠프를 크리프·힐즈·코뮤니티·센터에서 약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조롭게 끝냈다.

교민동정

◆김춘타(킴스카메라)=모교 대광고 은사들이 토론토를 방문, 바쁜 나날을 보냈다.

27년 이상 근속하신 이창민(수학), 김유영(독일어) 선생님이 다녀 가셨다. 대광고 고참 교사들은 북미 각지역의 대광동창생들의 주선으로 매년 L.A., 시카고, 토론토 등지를 여행한다.

『메시아』대공연 채비

한인합창단 연습돌입

한인합창단(지휘 박재훈, 단장 문남귀)은 메시아 대연주회를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오는 12월4일(토) 저녁8시 토론토시내 메시홀에서 가질 제2회 메시아대연주회는 노스욕심포니의 반주와 함께 소프라노 이주연, 테너 조영호, 엘토 김신자, 바리톤 신경욱등이 출연한다. 특히 이번 연주에는 디트로이트 연합합창단 80명이 함께 공연, 총 합창연주자는 2백명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창연습은 9월3일(금) 저녁7시부터 블루어 연합교회 음악실에서 시작된다.

이번 연주회 합창부 참여희망자는 이날 현장서 등록하면 된다. 연락처는 497-0406.

한인합창단은 또한 내년 2월에 베토벤 교향곡 9번, 5월에 캐나다 교역자협의회 후원의 기아민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가진다.

투숙객가장 매춘

시카고한인모텔 수사

(시카고지사)교포경영 숙박업소에 투숙객을 가장한 매춘부와 펨프가 상습적으로 출입하면서 매춘행위를 자행, 이에대한 인근주민의 진정에 따라 해당경찰당국과 시의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이러한 사실이 해당지역 신문에 대서특필이 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5440 N. 쉐리단에 위치한 트로피카나 모텔(대표·최정의·이광회)에는 지난 1일 해당 48지구 시의원 매리온볼리니여사와 20지구 경찰서의하워드·패틴긴서장등이 방문하여 트로피카나모텔을 근거지로 매춘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주인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의원과 경찰서장의 모텔방문은 인근주민 텔마한나씨(엣지워터 플라자 콘도미니엄·거주)등이 『트로피카나 모텔 주변에는 항상 여자들이 서성거리며 호객행위를 하고있다』는 진정을 한데서 따른것.

이들 매춘부들은 투숙객을 가장하여 일단 모텔에 방을 얻은후 길거리 나가 유객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모텔을 찾은 패틴긴서장은 『지난 1년동안 이 모텔부근에서 12명의 매춘부를 체포한 바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국인 주인이 이 모텔을 인수한 이후부터 각종 범죄사범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5분 인터뷰

강찬영변호사 개업 1년여

교포고객들 장사진 변호사 1명 채용

한인사회의 큰 기대를 지고 등장한 한인변호사 1호 강찬영씨는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강씨가 작년4월 484 블루어·스트릿·웨스트에 사무실을 차린지 1년4개월——.

그동안 강씨는 약1,500건의 교포들 법률케이스를

이중 상점매매등 사업관계가 6~7백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민·비자문제 3백건, 회사설립 1백건, 유언장 작성 50건 등이다.

이같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강변호사 사무실에는 5명의 여직원이 있고, 곧 케네디안변호사 1명이 고용된다.

강씨 자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아침 10시에서 하오5시까지 일하며, 점심시간은 30분으로 제한됐다.

주위에서는 강씨가 변호사 자격증을 얻자 마자, 또 개업하자 마자 오랜 경험과 경력을 가진 기성변호사 못지 않게 많은 고객을 확보한 것은 강씨 특유의 성실성, 정직성때문이라고 본다.

강변호사는 대체적으로 자신이 맡을사건과 맡을수 없는 분야를 분명히 밝혀주며, 자신이 없는 사건을 당하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이러한 친절성은 약관 29세가 가진 정력과 함께 강씨에 대한 신뢰심을 높여준다.

캐나다의 한인변호사는 밴쿠버에 1명이 있고, 동부서는 강씨 뿐이다.

강씨의 근황을 본인의 입을 통해 들어보면····

○한국일보 : 항상 분주하신데 인원이 더 필요치 않은지?

●강 : 케네디안변호사 1명을 곧 채용한다. 교포고객들과의 상담시간이 길어서 외부에 나가 직접 뛰는 변호사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고객들을 좀 더 잘 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 : 현재 주로 맡는 사건은?

●강 : 99%가 상업적인 케이스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은 시간이 딸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손댈 엄두를 못낸다. 며칠내 채용하는 다른 변호사가 이런 분야를 전담할 것이다.

○한국일보 : 고객의 거의 전부가 교포들일텐데 그들과 접촉한 소감은?

●강 : 모두들 깨끗하고 신사적이어서 일하기가 좋았다.

○한국일보 : 애로사항은 없었는가?

◆상담중인 강찬영변호사

●강 : 개업직후에는 약속없이 무작정 찾아오는 분이 많아 스케줄에서 차질이 자주 생겼으나, 이제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또 공짜 상담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은 아마 몰라서 상담료 낼 생각을 안하는 것 같다. 변호사가 팔 수 있는 것은 배운 지식에서 나온 써비스뿐이다. 이 써비스를 봉사로만 생각한다면 변호사는 다 굶어죽을 것이다.

○한국일보 : 상담료는 어느 정도인지?

●강 : 보통 30분간에 20달러이다. 상점구입 오퍼작성에는 50달러를 받는다.

○한국일보사 : 교포들께 하고 싶은 말은?

●강 : 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가게매매등 상업적인 것이지만 일단 법률적 문제를 가진 분은 어떤 종류이건 상담을 요청해주면 좋겠다. 간혹 교포들중 가치없는 변호사를 만나 돈은 돈대로 쓰고도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 나는 내가 맡을 수 없는 일이라면 책임지고 좋은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다. 나를 찾는 교포들은 미리미리 시간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거의가 급하게 되어야 찾아오시는데, 피차에 무리가 생긴다.

앞으로 한인사회에도 한국인변호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중국인들은 토론토에만 약50만명의 변호사를 가진 것에 비하면 우리는 변호사가 너무 적다.

金聖鍾作

殺意斷層 ⑱

술에 취한 그녀는 파티장서 히죽히죽…

회장이 가래끓는 소리를 내면서 꿀꼭꿀꼭 기침했다. 턱이 괭이처럼 뾰쭉하다. 안경 너머에서 노리끼한 눈이 빨려들듯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아, 한상무…음, 좋아. 잘 해봐. 그런데… 꼴록 꼴록… 얼굴이 한층군. 꼴록 꼴록….」

턱으로 문자를 가리킨다. 한기수는 고개를 숙인채 말했다.

「네, 요즘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고 있읍니다.」

「한상무가… 꼴록 꼴록… 잘해줘야겠군. 꼴록꼴록…음, 좋아. 됐어. 저쪽으로 가서 뭐좀 먹어.」

그들은 그 곳을 나와 운동장처럼 넓은 홀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밴드가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동안 문자는 한쪽 구석에 가만히 서있었다. 그녀는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대로 거기에 말없이 서있다가 기회를 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를 알아본 회사 간부의 부인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흔들갑을 떠는 그녀들에게 둘러싸여 문자는 홀 중앙으로 나가 술을 몇잔 들었다. 몸이 무척 약해진데다 공복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녀는 금방 취했다.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그녀는 주는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다. 일단 취하자 홀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괜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웃으면서 흔들흔들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급기야 배를 쥐고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발작적인 웃음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어느 여인을 가리키며 웃어대고 있었다. 그 여자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앞뒤가 깊이 패어 상체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거기에다 목걸이며 귀걸이도 가장 화려한 것을 달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촌스럽고 천박해 보였다.

「그렇게 입고 춥지 않으세요? 제 머플러를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그녀는 재미있다는듯 또 웃어댔다. 모욕을 당한 여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씩씩거렸다. 한기수가 급히 다가와 문자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창백한 얼굴로 아내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한기수는 아무 말없이 차에 올랐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그는 시종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화가 나면 그는 언제나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서서히 그것을 터뜨린다.

차가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자는 차 바닥에다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한기수는 어이없다는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가 집앞에 닿자 먼저 문을 열고 휑하니 나가버렸다. 문자는 운전사의 부축을 받고 차에서 내렸다.

「김기사, 미안해요. 내가 치울께 그냥 내버려둬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운전사는 그녀를 흘겨보면서 말했다.

한기수는 여전히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다.

「미안하고 죄송해요, 한기수씨.」

문자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고 나서 욕실로 들어가 또 토했다. 입을 씻고 얼굴에 물을 끼얹고 나자 조금 정신이 드는것 같았다. 욕실에서 나가자 남편이 싸늘하게

「이리와봐!」

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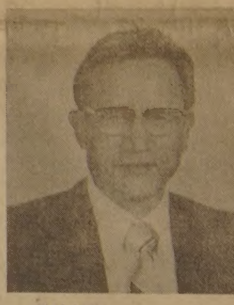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1>

박윤선목사 사경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4:9) 이 함께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한 심령들이 진정 해갈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 시 : 8월20일~22일(금, 토, 일)
저녁 7:30, 아침 10:00(토).
장 소 : 중앙장로교회
(502 Bathurst St. &College St.)



강사소개 :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졸 (신학박사)
현 합동신학원장
총회신학교장 역임
고려신학교장 역임
저서 : 성경주석(전20권)

주최 : 세계복음운동 토론토지회
☎ : 270-3092, 431-7391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5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 면	.89	.99
냉 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신품 대한 쌀 가주미 장미표 국보 경기미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UNPAINTED FURNITURE

FOR SALE
CONTENTS OF FACTORY

MANY OTHER ITEMS AT SIMILAR SAVINGS
BUNK BEDS $99.95
MATTRESSES TWIN DOUBLE $49.95

★ 믿을수 없는 가격

★페인트 칠없는 나무그대로의 원제품 가구
★저렴한 가격으로 호텔·레스토랑·사무실등에 각종비품 대량공급.

한번들려주세요.

NORTH PARK DISTRIBUTORS
3368 YONGE ST. 488-7911
(7 Blocks North of Lawrence)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제공-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627A Bloor St. W.
Toronto, Ontario
M6G 1K8
Phone: 533-7923
533-8344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협회측 불매운동 시사에
〈토론토·썬〉 판매함 설치로 응수

지난 7월11일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협회는 〈토론토·썬〉회사의 간부를 협회사무실로 초치하고,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1시간반에 걸쳐 토의했다.

8월16일 개최된 이 회담에는 협회측에서 김태진 이사장, 차선겸 회장, 김이열 부회장이, 썬회사측에서 Circulation Director인 Bill Brick와 Peter Fournier가 참석했다.

협회측은:

1)부족분(Shortage)과 도난에 대한 크레딧을 회사측이 책임질 것.

2)K.B.A.회원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K.B.A.전담자를 본사에 임명할 것.

3)신문의 공급가격을 일원화할 것.

4)일방적인 공급중단 행위를 지양할 것을 주장하고, 개점전의 수량부족과 도난에 대한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음은 엄연한 상식에 속하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아울러 불매운동을 전개할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썬〉회사측은,

1)부족분과 도난에 대한 크레딧은 중간업자(Wholesaler)와 상점간의 문제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

2)계속적인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그 명단을 본사에 제출해 주면 감독관이 새벽에 불시검사를 하여 해당 중간업자를문책하겠다.

3)도난문제에 대해서는 그 방비책으로 안전함(Security box(상점측 부담 $35-1982.7.16 공한))을 설치할 것을 권한다.

4)시내에 〈썬〉취급 상점이 6,000여개에 달하는데 비해 담당직원은 5명 뿐이므로 상점에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K.B.A.전담자 임명은 불가능하고, 협회의 상담실을 통한 담당자라면 지정사무원을 둘 수 있다.

5)K.B.A.의 명단을 주면 각 중간업자에게 전하여 K.B.A.회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착오 없도록 배려할 것을 지시하는 서한을 발송하겠다.

6)K.B.A.회원에 대해서는 신문을 2중으로 묶도록 지시하겠다.

7)공급가격의 일원화문제는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아울러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을 경우, 불매(boycott)를 단행하겠다는 협회측의 시사에 대해 Bill Brick는 그것은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면서 협회에서 부득이 불매를 단행하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함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금번 회담을 통하여 배달과 크레딧에 관한 근본적인 시정문제는 〈썬〉본사의 운영방침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기존제도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썬〉회사측의 태도이므로 협회측에서는 앞으로 약 2개월 기간을 두고 상황의 호전여부를 관망한 후 제2단계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빌·부릭씨

일부회원 협회처사 비난
VIDEO GLASSES에 대해

최근 협회는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3D Video Glasses의 공급을 위해 해당업자를 물색, 협회에서 주문을 받음으로써 신속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협회에서 맺은 공급가격이 유일한 도매가격이었으며, 협회가 지정한 업자는 Mac's Milk이외에 Becker Milk에 공급한 바 있는 유일한 공급업자임을 확인하고, 「실협뉴스」를 통해 공지하여 상당수의 회원이 매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후, 캐나다 자체에서 생산함으로써(업자에 의하면 electronize가 안되어 있다고 함) 원가가 떨어지고, 각 도매상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옴으로써 공급과잉 현상을 일으켜 업자들이 가격을 낮추어 방매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회원들은 협회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원의 이익을 위해 단행한 처사가 결과적으로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에게 공급을 알선한 결과가 되었음을 협회에서는 시인하고, 일시적인 인기품목으로서 부득이한 현상이므로 협회의 처사에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코카콜라 1.5리터
PROMOTION 추진중

8월16일 협회는 코카콜라의 매네저 Wayne Delfino와 회담을 갖고 제2차 Promotion으로 1.5 l에 대한 협상을 시도하였다.

코크측에서는 99센트를 주장하는데 대하여 협회측은 89센트를 강력히 주장하여, 일단 귀사후 의논하여 다시 통보해 주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 Promotion이 성립되면 8월26일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Mac's Milk에서는 16일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의 가능성을 참작,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한다.

한편 이 자리에서 차선겸 회장은 "앞으로 Promotion을 맥스나 베커와 동시에 실시하여 K.B.A.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기 바란다"고 제의하였다.

〈법률상담〉
유 서 〈4〉

Ralph M. Levine
강 공 선 역

유서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재산을 처분하는데는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유서는 죽은후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유서의 법률상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유서는 유언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전혀 유언자의 재산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유언자는 죽을때까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유증한다는 유서를 작성한 예를 들어 본다.

이런 유서가 작성되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한 아들에게는 집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다. 아버지는 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팔아 먹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아들은 주택의 매각에 반대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의 권한이 없다. 집을 팔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주택을 아들에게 유증한다고 써놓은 유서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재산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처분되었기 때문에 유산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아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유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유서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유증한다고 유서를 작성해 놓았어도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에 유언자는 똑같은 유산을 놓고 얼마든지 다른 수익자에게 유증하는 또하나의 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서를 취소하는 올바른 절차는 차후에 언급하기로 한다.

대개 유서를 작성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내 사업체는 니게 주고마." 혹은 "내 집은 니게 준다고 유서에 쓸끼라"고 말을 한다. 이러한 언질에 법률상의 구속력이 있느냐하면 대개 유서로 재산을 남기겠다는 약속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처럼 한가지 예외는있다.

김사장은 조카인 철수가 무척 부러워하는 고급보트 한척을 가지고 있다. 김사장의 부인과 두 딸은 이 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김사장은 철수와 함께 낚시를 나갈 적이면 "내가 죽으면 이 배는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곤 하였다. 이 예를 가지고 다음 몇가지 상황을 논해 보기로 한다.

1970년에 김사장은 이 배를 조카인 철수에게 유증한다는 유서를 작성했다. 그후 이 배의 값이 뛰어올랐고, 부인과 딸들은 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그 수입으로 가족의 부양에 쓰기로 하였다. 따라서 1980년에 김사장은 1970년의 유서를 취소하는 또 하나의 유서를 작성하였다. 새 유서에 김사장은 모든 것을 부인에게 유증하기로 했다.

철수는 이 배에 대해 청구권이 있는가?

유서는 사망전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사장에게는 유서와 그 안에 기록된 유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80년의 유서에는 철수가 수익자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에 대해 하등의 청구권이 없다.

김사장이 유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유산은 당연히 상속법(Succession Law Reform Act)에 의해 분배된다.(이 법조항은 앞으로 다시 논하기로 한다) 즉 김사장 부인과 두 딸만이 유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철수는 보트에 대해 권한이 없는가?

대답은 "No"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적당한 이유없이 무상으로 한 약속은 집행하지 않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철수는 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일도 없고, 배를 유증하겠다고 한 아저씨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생존시에 기증을 강요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유서로 유증할 것을 강요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가 성립된다.

김씨 내외가 조그마한 농장에서 살고 있었다. 1970년에 김씨가 사망했고, 전재산을 부인에게 남겨주었다. 김씨부인은 농장에 머물러 살고 싶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고, 두 아들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했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카가 이웃 농장에 살고 있어서 조카가족들이 농장일을 거들어 주겠는지 물어보기로 작정했다. 여기에는 조카측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씨부인은 조카 보고 일을 도와주면 조카 농장에 인접해 있는 2에이커의 땅을 유증하겠다고 하였다.

1975년에 김씨부인이 사망하기까지 5년간 조카와 그 가족은 김씨부인 농장의 모든 큰일을 다해 주었다.

다음 두가지를 가상해 보기로 한다.

1. 김씨부인은 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전재산이 두 아들에게로 넘어갔다.
2. 김씨부인은 전재산을 두 아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서를 작성했다.

어느 경우이든 김씨의 사망시 약속 받은바 있는 2에이커에 대해 조카는 청구할 권한이 있는가?

대답은 십중팔구 "Yes"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gratituously) 이루어진 약속은 강제집행하지 않지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요건"(Valuable consideration)을 이행한 약속은 집행하게 되어있다. 간단히 말해서 계약이 성립된 약속이면 법원이 집행한다는 것이다.

김씨부인은 조카에게 농장에 제공하는 노동의 댓가로 2에이커의 땅을 유증하기로 약속하였고, 조카가 실행한 노력제공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요건으로서 두가지 약속이 모두 결과적으로 계약을 구성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김씨부인이 해당재산을 조카에게 유증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조카에 대한 김씨부인의 책임이행은 일종의 채무(debt)와 같은 것으로서 조카는 유산에 대해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조카가 2에이커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 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을 이행한 사실이 있음으로 해서 법원은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토지의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에 관한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률에는 실질적인 계약이행에 관한 구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카는 계약상의 자기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이 의무이행이 서면계약서의 요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조카의 노력제공에 대해 법원이 유산 가운데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원으로 채무를 갚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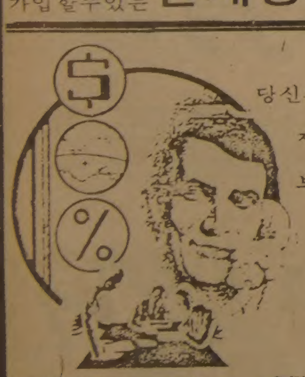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실협회원만이 가입할수있는 단체상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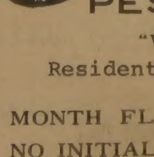
당신의 가장 귀한 재산은 수입을 보장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CAROLINA LIFE & ACCIDENT INSURANCE COMPANY 는
당신의 수입의 손실을 보호해드립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금으로 드립니다.
◇별도 지정인이 없는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정부나 기타 보험회사의 보상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해 드립니다.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24시간, 365일 보호합니다.
전화224-2235 DEAN VERNON 을 불러 주세요.

SKYWAY BUSINESS MACHINES
SPECIAL 30% OFF FOR K.B.A. Members
1. 각종전자계산기 수리
2. PAPER ROLL (Each Case=100 Rolls)
3. NCR STYLE (수동식)

◆캐쉬레지스타 ◆복사기 ◆계산기 ◆각종타자기
SHARP 3M, MITA COPYSTAR, IBM
SALES-LEASING, REPAIRS & SERVIC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B)675-1295~6, (R)671-0938 김인환

한인실업인 협회지정



GLOBE
PEST CONTROL
"WE KILL BUGS"
Residential.Comm.Industrial
MONTH FLAT: $8
NO INITIAL CHARGE
※다른조건의 비용청구는 없음.
전화주시면 즉시 달려가겠읍니다
WE'RE SMALL BUT WE'RE GOOD
ASK ABOUT OUR WRITTEN GUARANTEE
GOV'T LICENSED 491-1585 FREE ESTIMATES
789-2527

Big Chief®
Beef Jerky
1 BOX(48 PKGS) $13.10
술안주·다이엩용 스낵으로
한번 잡수어 보신분은 꼭 다시찾는
알버타산 순 쇠고기 포!
본인은 금번 본사와 온타리오주 총판권 계약을 맺고 소매상을 경영하시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온타리오주에서는 처음 취급되는 비프 절 一키를 판매중이오나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즉시 배달해 드리겠읍니다.
BIG CHIEF ONTARIO 총판
정세용 244-2483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獨立유공 추가褒賞

勳章57 大統領표창 371명등

정부는 14일 광복37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4백28명을 추가포상했다。포상자들을 훈격별로보면▲대한민국장은 대상자가 없고▲대통령장에 고金河洛의병장 ▲국민장은 上海임정국무위원이었던 고 金星淑씨등 6명▲건국포장은 柳寬順열사의오빠인 고 柳愚錫씨와 고 白南薰씨, 尹致暎씨, 宋志英국회의원등 50명, 훈장이 57명이며 그밖에 尉珍의 暢幽契員 19명등 3백71명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원호처는 62년부터 올해까지 6차에걸쳐 총3천1백5명의 독립유공자를발굴,포상해왔는데 올해 추가포상에서는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투옥·활동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이상으로 낮추고 ▲일제하의 농민운동이나 선비운동이 일본경찰에의해 사회주의운동으로 날조된것을 엄격한조사로 바로잡아 포상했으며▲공적심사자료도 문헌에만 매달리던것을 증언이나 기타 고증을 참작토록했다。 ★관련기사11면

日 政府의 具體案 來週중에 발표

【東京13＝日宋孝彬특파원】 교과서 왜곡에 관한 각료들의 소견에 난맥상을 보이고있는 일본정부는 13일 중공에 파견됐던 외무·문부성의 두국장이 귀국한 것을 계기로 교과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내주중에,늦어도 오는27일까지 수상 또는 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장래의 교과서 수정을 약속하는 내용의 정부견해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견해에는 ①기술재수정에는 기본적으로 응하되 그방안을 제시하고 ②그러나 정부와 자민당에도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수정은 국내조정이 끝날 때까지 상당시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이날 하오 수상관저에서 스즈끼(鈴木) 수상 사꾸라우찌 (櫻內) 외상 오가와(小川) 문부상 미야자와 (宮澤) 관방상 스노베 (須之部) 외무성 사무차관 기우찌 (木內) 외무성 아시아국장 스즈끼 (鈴木勲) 문부성 초중등 교육국장등이 중공에서 귀국한 하시모또 (橋本恕) 외무성문화정보국장과 오오사끼 (大崎仁) 문부성국제학술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후 대응책검토에 착수했다。

한편 일본정부대변인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 관방장관은 13일 일본정부는 사꾸라우찌외상의 오는 27일 東南亞여행 출발전에 고교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둘러싼 한국·중국과의 외교분쟁이 조속히 해결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관련기사 2 면

月城原電 12월發電

어제부터 核연료 장전

국내 원자력발전소시설로는 두번째시설용량인 67만8천7백㎾의 月城原電 (原電3호기) 이 준공을 앞두고 14일부터 핵연료장전에 들어갔다。 ★해설 4 면

한국전력은 14일 경북月城郡陽南面羅兒里현지에서 成樂正사장을 비롯한 관계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원자로에 우라늄을넣는 핵연료장전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압중수로형인 月城원자력발전소는 앞으로 10여일간에 걸쳐 핵연료를 장전,오는 9월에 불을 댕겨 출력을높이면서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본격적인 상업발전은 오는 12월부터 개시한다。

이로써 국내 원자력 발전설비는 가동중인 古里1호기 (58만 7천㎾) 에 이어 2기에 1백26만5천7백㎾에 이르러 총발전용량은 1천만㎾를 돌파, 1천48만8천7백㎾로 늘어나게됐다。또 총발전용량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서 11·8%로 높아져 수력발전비중을 앞지르게 되었다。

月城原電의 가압중수로형은 캐나다가개발한것으로 지난76년 1월에 착공, 외자5억9천5백31만달러와 내자3천54억9천만원의 자금을투입, 현재99·35%의공정을 보이고 있다。

月城原電에 사용되는 초기핵연료는 AECL (캐나다원자력공사) 이 공급책임을 맡았다。

原電3호기는 당초 내년4월준공예정이었으나 이날연료를 장전함으로써 4개월의 공기를 단축준공케 됐다。

이원자력발전소준공에따라 연간 5백만배럴의 유류대체효과를 얻게된다。

金大中사건·光州사태 관련자등 1,286명 特赦

政府、오늘 光復節맞아

戒嚴위반 28명포함 金相賢·高銀씨도

정부는 14일 제37주년光復節에 즈음해 金大中내란음모사건관련자인 金相賢(前국회의원)、詩人 高銀泰씨(筆名·高銀) 등 3명、光州사태관련자 4명、戒嚴法위반자 28명등 35명과 行刑성적이 우수한 일반모범受刑者 1천43명、모범소년원생 2백8명등 모두 1천2백86명을 刑執行정지 또는 특별假석방키로했다。

정부의 이번조치는 지난3월3일 제5공화국출범 1주년을맞아 2천8백63명에 대한 特赦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이다。

정부대변인 李振羲 문공장관은 14일상오 特赦조치를발표하고『이번 恩典조치는 국가사회의 안정과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제2의跳躍을 이룩해 위대한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全斗煥대통령의 의지와 英斷에 따른것』이라고 말하고『정부는 受刑者중 과거의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行刑성적이 우수해 새국가건설에 同參할수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또『정부는 앞으로 나머지 受刑者들에대해서도 여러가지 정상을 계속 주의깊게 관찰、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들의가족들이 이들의 改過遷善을 다짐해 참된 새사람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할수있다고 보여질때에는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假석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金大中사건관련자=▲金相賢(징역 4년) ▲高銀泰(징역5년) ▲李錫杓(前中大4년·징역3년)

◇光州사태관련자=▲金靈起(前朝鮮大3년·징역4년) ▲梁喜昇(前全南大2년·징역4년) ▲李在鎬(실내장식업·징역5년) ▲鄭容明(무직·징역2년)

◇기타戒嚴法위반자=▲裵基善(前민주연합동지회간사·징역1년6월) ▲吳世玹(前韓神大學院1년·징역1년) ▲片茂均(前東大3년·징역2년) ▲權五國(前啓明大3년·징역2년) ▲田泳燦(前延大2년·〃) ▲方仁赫(前西江大3년·〃) ▲玄武煥(前서울대4년·〃) ▲方飛熇(前忠南大4년·징역3년) ▲鄭亨瑞(前慶熙大1년·〃)

오늘 光復節37돌 전국서 紀念행사

정부는 光復節제37주년을 맞아 先烈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출발을 기념키위해 15일 서울과 지방에서 광복절행사를 벌인다。

서울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열리는 慶祝式에는 입법、사법、행정부의 차관급이상 인사와 정당대표및 간부、平統상임위원및 운영위원、교육、금융、경제、언론、문화、예술、체육、종교계대표、주한외교관、해외동포등 4천여명이 참석한다。

정부는 景福宮경회루에서 경축리셉션도 갖는다。

全대통령 내일 阿洲·加 순방길에

5國서 6차례頂上회담、經協논의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16일상오 대통령특별기편으로 16泊17일간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등 5개국 공식巡訪길에 오른다。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인 全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巡訪및 캐나다방문에는 金埈成부총리겸 기획원장관등 공식수행원 18명(캐나다는 19명)과 비공식수행원이 수행한다。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캐나다

全대통령은 16일상오 金浦공항을 출발、寄着地인 말레이지아 페낭에서 1泊한뒤 1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를 공식 방문、케냐의 모이대통령、나이지리아의 샤가리대통령、가봉의 봉고 대통령、세네갈의 디우프 대통령、캐나다의 트뤼도수상과 모두6차례에 걸친 頂上회담을갖고 巡訪國과의 협력증진방안등 상호관심사에 관해 폭넓은의견교환을 가진뒤 오는9월1일 귀국한다。

全대통령은 특히 巡訪國元首들과의 頂上회담을통해▲최근의 국제정세와 지역정세에관해 의견을 교환하고▲우리의 평화통일노력을 설명、이해와 지지기반을 넓히는한편▲정치·경제·안보·문화등 다방면에 걸쳐새로운 韓·阿및 韓·캐나다 우호협력관계를 다지는 방안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은 또 아프리카 4개국 頂上들과의 회담을통해 우리의 경제개발경험을 설명하고 資源협력、合作투자、경제기술협력문제등에 관해 同伴者的차원에서 협력증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韓·캐나다頂上회담에서는 全대통령이 제시한 太平洋頂上年例회담구상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등을 폭넓게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내외는 캐나다 방문에 앞서 大西洋의 遠洋어업기지인 라스팔마스(스페인領)에 寄着、우리나라 遠洋漁業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공식수행원 명단과 巡訪日程은 다음과같다。

日程

◇말레이지아▲16일 하오 페낭도착▲17일 상오 페낭출발

◇케냐▲17일하오 도착、모이대통령과 정상회담▲18일상오 故조모 케냐타대통령墓所헌화、나이로비市廳방문、마사이마라 국립공원시찰▲〃하오 僑民리셉션、모이대통령 주최晩餐▲19일상오 작별회담및 공동성명署名、나이지리아向發

◇나이지리아▲19일 하오 도착、1차정상회담▲20일상오 無名용사탑獻花、교민리셉션▲〃하오 제2차정상회담、외교사절단 접견▲21일상오 베누에州시찰▲〃하오 샤가리대통령주최 공식만찬▲22일상오 가봉향발

◇가봉▲22일상오도착▲〃하오 레옹음바 初代대통령墓所헌화、교민리셉션、봉고대통령주최 공식만찬▲23일상오 정상회담、영부인은 조세핀 봉고 산부인과병원방문▲〃하오 리브르빌 시청방문▲24일상오 작별예방후 세네갈향발

◇세네갈▲24일하오도착、디우프대통령주최공식리셉션▲25일 상오 정상회담▲〃하오 디우프대통령주최 공식오찬▲26일 상오 공동성명 서명、라스팔마스향발

◇라스팔마스▲26일하오도착▲27일상오 遠洋漁船기지시찰▲〃하오 교민 리셉션▲28일상오 캐나다 향발

◇캐나다▲28일하오 도착、총독예방、교민리셉션▲29일상오 생트안느병원 방문▲30일 상오 정상회담▲〃하오 트뤼도수상 주최 오찬、야당당수접견、수상주최리셉션、총독주최만찬▲31일상오 작별 예방후 서울향발

◇귀국▲31일하오 앵커리지착、美알래스카州지사와 환담후 출발▲9월1일 하오 金浦공항도착

公式隨行員

▲金埈成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李範錫외무장관▲金東輝상공장관▲李東源駐케냐、林東源駐나이지리아、咸泰赫駐가봉、張明貫駐세네갈、李揆現駐캐나다대사(이상大使는각駐在國방문시)▲咸秉春대통령비서실장▲金潤鎬합참의장▲奉斗玩의원(캐나다방문시)▲張世東대통령경호실장▲姜仁熙농수산부차관▲崔東奎동자부차관▲李寬永건설부차관▲金炳薰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黃善必공보수석비서관▲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李鶴捧민정수석비서관▲閔炳奭主治醫▲洪淳瑛아프리카국장▲金興圭美洲국장(캐나다방문시)▲李長春대통령외교안보비서관

中共의 反共·反鄧게릴라들 北京정권 위협加重

山岳지대서 武裝활동벌여

【臺北12日CNA＝聯合】 중공의 북부산악지역에서 反共·反鄧小平투쟁을 전개하고있는것으로 보도된 게릴라부대들은 현재 北京정권에 대한 위협을 계속 가중시키고있다고 중공내 소식통들로부터의 보도들이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지난 4개월간 遼寧省의 瀋陽시에서만도 3백여명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지방 公安당국은 이들이 산악지대에 숨어들어 무장게릴라활동을 전개하고있는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소식통들은 또작년말 內蒙古지방에서 한폭동이 일어난직후 2백65명의 노동자들이 산악지대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공본토내의 게릴라부대중 長白山에서 활약중인 게릴라부대가 무장과 反共조직면에서 가장 우수한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릴라부대의 대원중에는 고위黨간부의 자녀들을 비롯, 젊은지식층인사들이 포함돼있으며 심지어는反鄧계열의현역군인들까지도이들과함께활동하고있다고이소식통들은덧붙였다。

美 移民法개정안 上院서 審議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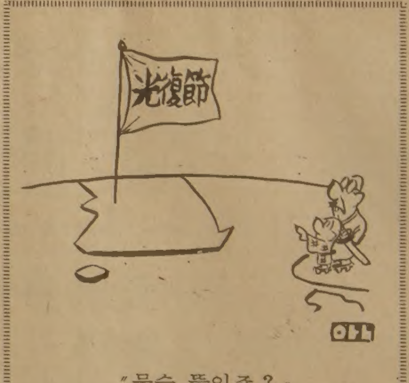
【워싱턴12日UPI＝聯合】 美상원은 12일 많은논란속에 불법이민을 통제하기위한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개정안의 제안자들은 미국에로의 불법적인 대거이주가『미국의 장래에 미치는 최대 위협중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이새이민법은 직업을찾아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주하려는자들의이주동기를 감소시킴으로써 미국의 국경통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颱風심술…家屋 5채 삼켜

◇태풍 세실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慶南陜川郡妙山面安城里에서 산사태가 발생, 한마을 가옥 5동이 흔적도 없이 쓸려갔다。【聯合＝電送】

社會漫評



"무슨 뜻이죠?"

地平線

歷史와 事實과는 구별된다。歷史는 史家에 의해 事實을 記述한것을 말한다。그러나 事實과 歷史家와 歷史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한다。이 관계에서 근본을 이루는 가장 重要한것은 事實이 아닌가 생각된다。그리고 이 事實을 엮는 史家의 史觀이 그다음으로 중요할것같다。▼그리스神話에 나오는 歷史의 女神 크리오는 제우스神의 딸이다。아홉의 姉妹女神이 있었지만 이 歷史의 女神은 너무나 수줍어했다고 한다。남앞에 나타나기를 몹시 꺼리다가도 歷史를 잘 알고 바르게 쓰는者 앞에는 꼭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크리오의 微笑를 살 정도로 잘 쓰는 歷史란 어떤것일까?뭐니 해도 事實이 있고 그다음 記述이 있는 것이므로 事實을 제대로 옮게 다룬 것이 잘된 歷史이고 미소를 살 歷史라 하겠다。▼굳이 요즘論難되고있는 日本의 韓國、中國、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侵略史의 歪曲을 들어 어떻게 處身하는것이 日本의 올바른 자세이고 또 바른 歷史記述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다만 日本이 過去의 소행들을 미화하기위해서 事實의 歪曲도 不辭한다는 風土가 생겨나게 된데는 敗戰國으로서 너무苦生을 모르고컸다는데에 理由가 있지않나생각할뿐이다。바깥世上도제대로 認識치못하고있지만 自身도 잘돌아볼 줄 모르는데서 「歷史歪曲」같은 교만이 생겨났을것이다。▼최근美國에서 또 하나의 秘密公文書가 秘密保管年限이 다 되어 公開되었다。終戰무렵 SWNCC(美국무성및 국방성합동조정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만들었다는 韓半島、日本에의 聯合軍進駐그리고「分割統治」에관한 計劃이다。SWNCC라고하면 바로 이위원회의 위촉으로 딘·러스크와 번스틸(후일 주한UN군사령관) 두사람이「38度分割線」을 만들게되던(45년8월11일밤) 그기구이다。그런데 이제 알고보니 SWNCC에서 만든계획중 38線을긋는것만 現實化되었고 日本을 연합국이「共同管理」하는案은 休紙化되어버렸다。歷史의 惡戲라 할까。▼만일 日本이 SWNCC의 계획처럼 갈갈이 分割되어 여러나라 관리하에 들었다면 그로인해 다친 갖은 辛酸을 日本은 어떻게 견뎌내었을까。解放37년이 되는 오늘까지 우리는 分斷의 아픔을 겪고 있다。그런 아픔을 우연히도 갖지않게 되었다고 남의 傷處에는 소금을 뿌려도 좋은것일까? 망가진日本의 歷史에 미소를 던질사람은 없다는것을 이젠 알았을 것이다。우리의 상처가 누구로 해서 생긴것인지 日本은 생각이나해보고 과거의 事實에 손을대는지 묻고싶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야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우리의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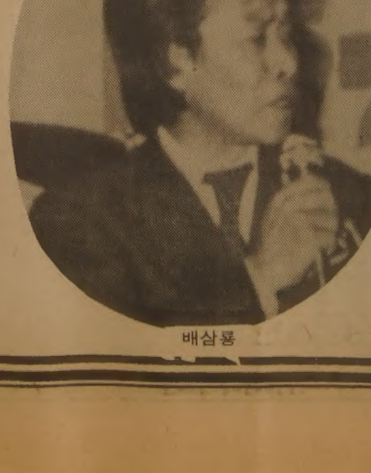
배삼룡 앵콜-쇼

⊙연장기간 8월19일(목)~22일(일)까지(4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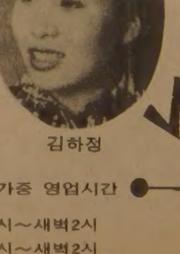
거구장 생긴 이래 최고의 인기, 최대의 인파

"새로운 레파토리로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배삼룡, 김하정, 김미리자 출연



배삼룡



김하정

※오시더라도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 가시는 손님이 많사오니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부득이 쇼기간중에는 테이블 착지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구장 대표 이한영 올림

거구장
5 BETHRIDGE RD.
☎: 742-1618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아침에

새로 시작하는 8·15

남이준 光復아닌 우리힘의 光復을

8·15 3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두가지 점을 생각해본다. 첫째는 日帝 36년동안 朝鮮人으로서 우리민족에 온갖害惡을 가한 사람을 정리하지 못해서 民族正氣를 세우지 못한 점이다. 8·15를 너무나 흥분속에서 맞이하다보니 恩讐를 넘어 서로 기뻐했고 희망에 도취하고 말았다. 더구나 공산도배의 활약과 또 人材難으로해서 親日派는 모두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그뒤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權力에 붙어 政治的 正路를 흐리게했고 자기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침이 없었다. 이렇게 民族의正氣가 서지않았으니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하는 인간들이 많이 생겨나서 正義가 숨고 志操가 무시당하고 말았다.

두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8·15기념행사가 점점 축소되어 간다는 것이다. 처음엔 민족의 이름으로 서울운동장에서 성대히 거행되곤 하였는데 한일회담을 전후하고 차차縮小하여 잡고 마침내 屋外에서 屋内로 기어들고 말았다. 그러나 요새 와서는 형식적이고 공식적이 되고 말았다. 民族的 憤怒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

세월이 흘러가면 흥분도 사라지고 理想도 멀어지기 일쑤이다. 그렇더라도 8·15해방을 民族史的 見地에서 심각하게 반성하고 항상 역사의 새로운 발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남이 준 8·15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힘으로 진정한 8·15를 맞이할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金成植 <慶熙大學 명예교수>

얕보이지 않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幸인지 不幸인지 금년 8·15는 일본역사교과서 문제로 한층 자극적인 8·15가 되는 것 같다. 더구나 60억불이다 40억불이다 하는 차관을 앞두고 역사교과서 문제가 생겼다고하는 것은 한편 괘씸한 생각도 들지만 차제에 우리도 몇가지 반성할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 모든 문제는 일본이 우리를 얕본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본다. 國力을 배양하고 국민이 一心단합하면 우리에 대한 일본의 태도도 달라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一心단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 산업기술의 발달을 일본은 자기의 경쟁자로 보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은 債權國家요, 우리가 일본의 경제권을 벗어날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한일회담의 是非를 한번쯤 반성해 보고 또 경제협력이란 美名下에 얼마나 많은 부정거래가 일본과 있어왔는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對日 적정거래에 힘쓰며 일본의경제권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된다.

다음 우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얕보임을 아니 받으려면 부정·부패가 없고 도덕·도의적으로 淸新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또는 문화적으로 도덕적 과오를 犯하지 말아야 남의 나라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크고 문화가 훌륭하다고 타국의 대접을 받는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政治道德의 타락이 없어야 된다. 인구 千萬도 못되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고 덴마크등 모두 작은 나라지만 그 나름대로 국제적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정치도덕상 과오가 적은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帝國 妄想 일본古老

이제 역사교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선 우리의 입장부터 이야기 해보자. 요새 일제시대 植民史觀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이 많다. 무엇을 가리켜 植民史觀인지 알 수 없으나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몇개의 낱말을 고친다고 植民史觀이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植民史觀이란 權威主義下에서 敎導된 服從型·無批判型 史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랑케史學에서 오는 비판적이고 事實的인 史學이 아니라 식민시대에 조선 총독부의 정책과 이념에 따라 역사를 서술하던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것을 植民史觀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것을 빨리 청산해야된다는 이야기로 돌아 가야 된다.

그런데 植民史觀을 배격하는 史家중에서 과연 얼마나 服從型과 無批判型을 벗어난 史家가 있는 것인가. 歷史的현실을 바로 보고 사실을 사실대로 비판하고 서술할수 있는 용기있고 自主的史觀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은 역사적현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비판이 없던 사람들이 일본역사교과서에 대해서 핏대를 올리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植民史觀을 탈피했다고 할수 있을까.

끝으로 일본의 舊世代, 아직도 帝國主義시대의 관념을 벗어 버리지못하고 최후 죽는 날 까지 이를 간직하려고 하는 古老들에게 한마디 하고싶다. 왜냐. 이번 文部省 역사교과서 檢定에 입김을 넣은 사람이 다름아닌 帝國의 官學者, 御用學者였다는 이야기가 있기때문이다.

새시대의 일본인이나 한국인은 서로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가르쳐서 과거와 같은 양국간의 불행을 후손에게 남겨주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帝國의 妄想이 아직도 일본 古老나 관료간에 있다고 한는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요, 시대착오라고 아니할수 없다. 차제에 왜 일본은 역사교육을 중요시 하고 일본에 불명예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미화하고싶어 위조날조하고있는것일까.

일본은 지금 明治維新이후 잘못가르친 역사를 되풀이 하고있다. 일본은 전쟁이란 악랄한 수단으로 淸國과 러시아를 물리치고 한국을强占한후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역사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1차 대전후 5大強國에 끼이게 되자 萬世一系라는 일본을 선전하고 산업발달로 경제력이 풍부해 지자 야마도(大和)민족은 아시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라고 自慢하게 되고 또 그렇게 역사를 가르쳐 왔다. 오만불손한 생각은 더욱 자랐다. 일본은 神州라고 가르쳤고 天皇은 現人神으로 믿었으며 국민은 皇民이라고 가르쳤다. 급기야는 야마도 민족의 사명을 고취했다. 그리하여 滿洲國을 세웠고 중국을 침략하고 급기야 「大東亞戰爭」 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야마도 민족을 중심한 大東亞共榮圈을 세운다고 天照大神을 우주의 至高至聖神이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쳤다. 점령하의 국민들에게는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한국에 대한 虐政은 이루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 팽창주의로 나가다가 軍國은 敗하고 말았다. 모르긴 몰라도 요새 일본의 젊은 이들은 패전으로 인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軍國主義에서 해방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금 60대의 일본史學者들의 저서를 보아도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으니 말이다.

日本은 정신적 小國

오늘의 일본은 지난날의 독일을 참고로 생각함이 좋을 것같다. 독일이 통일된(1871)뒤 정치·경제·문화에 급격한 발전이 있자 〈독일, 독일, 世界의 第一〉이라고 自慢했고 皇帝는 神權說을 믿고 中世神聖로마帝國을 재건하려고했다. 역사교육도 프랑스나 영국이 유럽史의 일부로 자기들의 역사를 가르칠때 독일은 독일史를 중심하고 유럽史를 가르쳤고 독일이 유럽의 中心國家라고 가르쳤다. 이리하여 독일의 학문, 특히 역사교육은 쇼비니즘으로 흘렀다. 이것들이 독일로 하여금 1차대전을 일으키게 했고 또 敗戰으로 몰아 넣었다. 1次대전전의 독일과 2차대전전의 日本은 다를 데가 없다.

이제 日本은 歷史敎科書를 僞造·歪曲·美化해서 히틀러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아니면 日本靑年들의 敗戰으로 긴 劣等의식이 없어졌다는가? 그러면 日本의 과거 殘虐相은 더욱 世下에 폭로될것이오 경제적 大國이 정신적 小國으로 떨어질것이다.

韓·日「歪曲波高」의 向方과 대책

政治部기자 座談

國力만이 對應策

긴眼目、對日자세 再정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수 없는 일본의역사 교과서歪曲 문제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대응책마련과 對日聲討가 계속된것도 벌써 1개월여가 됩니다. 교과서 문제는 아직도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 교과서왜곡에 따른 韓日간의 波高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것인지, 그리고 이번 교과서왜곡문제로 가다듬어야할 우리의 자세는 어떤것인지등을 얘기해볼까요.

—교과서왜곡문제는 마침 光復節을앞두고 터져 국민의對日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것 같아요.

—정부로서는 일본이「겸허하게 한국입장을 理解」云云하면서도 조금도 是正할기미를 보이지않자 지난5일 李範錫외무장관이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備忘錄을 마에다(前田)대사에게 전달했고 그래도 반응이 나타나지않자 12일에는 고또(後藤)공사를 불러 최후통첩형식으로 다시 한번 신속하고도 성의있는시정태도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일본이 여전히 中共엔特使를 보내고 한국측에는「시간벌기」로 눈치작전으로나오자 是正에관한 조속한회답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지요.

—12일의 樹東鋼亞洲국장과 고또공사의 요담에서는 한국의 국민여론등으로 봐서 시간이흐르면 흐를수록 문제해결이 어렵다는점을 일본측에 분명히 전달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않은 상태지요. 정부는 국민의 怒濤와같은 反日·抗日감정을 밑받침삼아「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是正」이라는 전례없는 強硬공세를 펴고있으나 일본의 태도는 여전히 불성실하기만합니다.

—엄연한 침략·收奪의 史實을 美化 歪曲시키는 일본인만큼 그들의 철면피한 자세도 가위 1級이라고 할수있어요. 그렇게 주변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비난·규탄·반발이 꼬리를 무는데도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고있으니….

—『한국의 합의를받아들여 歪曲부분은 시정해야한다』云云한 사꾸라우찌(櫻内)일본外相의 소위「所見」은 그야말로 그들의 외교적 2重性과 奸計라고 할수있어요.

—일본정부가 이문제에관해 공식성명이나 談話를 내겠다고 바람을 잡다가 기껏 낸것이 외상의, 그것도 私見같은「所見」으로 끝내려하지 않았습니까.

—사꾸라우찌外相의 기자회견후 우리외무부가 24시간이 지난뒤에야『사꾸라우찌외상의 견해는 일본정부전체의 통일된 공식견해는 아닌것으로안다』고 전례없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와 거의같은 시간에 스즈끼(鈴木)수상도 일본에서 같은내용의 발언을했어요.

만일 우리가 사꾸라우찌외상발언을 일본정부의 견해로 받아들였더라면 큰 망신을 당할뻔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그만큼 겉과 속이 다른 兩面전술을 쓴 셈이죠.

—한마디로 사꾸라우찌의「所見」은 한국과 中共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처지에서 우선 한국측의 銳鋒을 둔화시켜보자는 셈이지요.

—스즈끼수상이 13일하오 사꾸라우찌외상의 所見은 일본정부의 통합된견해가 아니라고 밝힌것은 일본정부가 아직도 방향을 잡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상입니다.

—스즈끼수상이 한국의 여론을 진정시키기위해 사꾸라우찌외상으로하여금 기자회견을 갖게했다가 自民黨내에서 불만의소리가 나오자 태도를 돌변한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또 外相의「歪曲교과서의修正」발언과「절대修正不可」라고한 오가와 文部相의 발언이 상반돼 기자들이 수상에게「어느쪽이냐」고다그치니까 스즈끼수상이 일단 시간을 벌기위해 그렇게말했을 가능성도 없지않아요.

—외무부는 스즈끼수상이 일본정기국회가 끝나는 21일이전에는 명확한 태도표명을 하지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측은 이문제가 즉각시정되지 않는것이 自民黨내의 매派들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는것같아요. 스즈끼수상이 결단을 내리지못하는것은 文部省관리들때문이 아니라 강경파의원들의 눈치를보지않을수 없기때문이라고 볼수있지요. 自民黨강경파의원들대부분이 지금까지 親韓派 내지는 知韓派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韓日의원연맹에서 그들과 접촉, 설득시키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아울든 교과서문제와 관련한 국민여론은 어느때보다도 일치된 합의점을 찾고있는것같아요. 대한체육회의경우 13일 오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릴예정이었던 제10차 韓日주니어종합경기대회를 무기연기한다고 일본측에 통고했어요. 이것은 양국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현시점에서 친선경기를 할수있겠느냐하는 뜻이 담겨 있는것같습니다.

—對日관계는 국민감정이 介在되는 특수한문제여서 선거구민과 늘 접촉하는 각정당에서도 민감한 반응이었지요.

—귀국활동을 하고 돌아온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방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에 대한 욕설 뿐이라는 겁니다.

—民正黨은 이문제에 대해 執權與黨으로서 책임이있다는점에서 무척 조심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문제를몇번 논의하다가 李載漾대표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韓日의원연맹에 떠맡겨 버렸고 그때문에「民正黨은 가만히있다는거냐」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요.

—韓日의원연맹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겼고 同分科委는 다시 8人小委를 구성,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一任했는데 별 뾰족한 妙手는 역시 없는것같아요.

—화내는일은 쉽지만 막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방안을 찾는것은 어려운 모양이지요.

분노·감정에 앞서 차갑게 對處해야

이번 사태가 自省과 단합의 轉機되도록

—더구나 보란듯이 妄言을 연속 되풀이 하는 마쓰노(松野) 국토청장관이 바로 의원연맹회원이 라고 스스로 밝히고 나서는 판에 우리측에서는 고작 자료나 보내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民正黨은 13일밤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強力對應」을 정부측에 촉구하는 정도로 끝났어요.

—民正黨이 직접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는다면 막후로 日本의 自民黨이나 他黨의원들을 만나서 무슨 感이라도 잡고 수습에도움을 주는 助役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겁니다.

—처음엔 초점을 못맞추고 탐색만 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강경해진것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民韓黨은 民正黨에 당직자회의를 하던 같은날인 7월26일 총무단과 국회外務·文公위원간담회를 열고 관계 常委소집문제를 논의했으나 적극론과 소극론이 맞서 논란을 벌였지요. 그러다가 원내총무실에서 일본교과서 歪曲내용을 밝히는 자료를 내면서 본격적인 院内대책을서둘렀어요.

—이 문제에 있어 국민당은 초반부터 강경론이였읍니다. 첫 성명도 他黨보다 이틀앞서 발표해 순발력을 보이더니 李東鎭총무가 주재한 7월 26일의 총무단·국회外務·文公위원연석회의에서 적극대책,관계常委 즉각소집을 주장하고 나왔어요.

—또 정치발전特委에서도 對日외교재검토를 촉구했고 13일의 당무회의에선 歪曲이 시정되지 않는한 韓日의원연맹에 不參한다는 결의까지 했읍니다.

—아울든 교과서 왜곡문제는 史實을 그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과 정부, 政黨이 그 어느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是正만이 문제의해결」이라는 합의점을 찾고있다고 볼수있어요.

—그러나 對日관계의 긴眼目에서 볼때 교과서문제는「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될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이와 類似한 문제는 얼마든지 발생할수있으니까요. 특히 韓日관계의 특수성에서볼때 더욱 그렇습니다. 日帝36년은 말할것도 없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일본에 수모를 당했읍니까.

—일본이 強한자에게는 약하고 약한자에게는 強하다는 것은 세계인들이 보는 한결같은 對日인식이라고 할수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깔볼수 없는 힘을 기르는게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는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힘이 우선 했지 않았읍니까.

—같은 생각입니다.국민에너지를 한곳으로 집결시켜國力을 키우는 국민단합과「自強」의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돼요.국가간의 문제는 결코 감정이나 높은 목소리만으로는 해결될수 없다는것이 세계史의 경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교과서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우리로서는 큰 轉機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국제정치의 冷酷함을 새삼깨닫게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國力을 키워야만 한다는 국민적 合意點을 더욱 다지는 轉機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이러한 轉機는 깨닫기만 해서 될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昇華돼야 할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사실 우리에게있어 일본하면 뼈아프고 쓰라린 침략과 수모를 안겨준 나라로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국민감정 분노가 폭발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더구나 이번같이 멀쩡한 侵略史實을 改作하려는데야 결코 가만있을수는 없지요.

—그러나 對日문제에 관한한 建國이래 냉철한 理性과 사리판단보다는 흥분과 분노가 앞섰던게 사실이지요.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될것같습니다.

—뜨거운 抗日反日熱氣가 지나고난뒤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체결되지않고 흐지부지되는式은 당당한 自主국가로서는 지양해야할것같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막을수없지만 이 분노를 국민단합과 국력신장, 국제지위 향상등 긴안목에서 일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歪曲사건으로 잠자는 모든것을 참고 기다리는 우리 국민을 자극, 스스로 국제적 망신을 톡톡이 샀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集約, 強硬對應방침을 통고한 이상이제는 이를구체화하는방향으로나가야겠지요.

—즉 이번 교과서문제도 마땅히 즉각是正내지 단단히 다짐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국교정상화작업을 다시한다는 자세로서 차분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분야에걸쳐 하나하나 재정리해야 될것같아요.

—즉 분노를 걷우고 먼장래를 보는 관점에서 일본에 대응하는 현실적 자세확립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것같습니다.

—정부는 물론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합해 확고한 주체적 관점에서 自省 自立 自強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政治部】

週末政局

메아리

小見과 宗師

金昌悅 <編輯委員>

엊그제 어느 아침신문에서「小見현신」이란 제목을 보았다. 1면에 4단으로 실린 기사의 副題다. 기사는 일본의 사꾸라우찌(櫻内義雄)외상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언급하여『한·일 기본조약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으로, 교과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本文에서는「소견」이라,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小見현신」이 무엇인지는알 수가 없다.

같은 날 어느 석간에와서,「小見」이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났다. 1면 머리의 컷트였다.『政府, 日外相「小見」眞意분석』

사꾸라우찌 외상의 발언은 일본정부의 공식견해가 아니며, 확고한 교과서 개정방침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여론의 반응은 퍽 냉담했다. 그런 뜻에서, 사꾸라우찌 개인의「대단찮은 견해」라서, 신문 제목을「小見」이라 한것일까.

그러나「小見」은 우리말 사전이나, 일본말사전에서 찾을수가 없는 말이다. 그것은 분명「所見」의 잘못이다.「所見」은『사물을 보고 가지는 바의 의견이나 생각』이다.

이 보다 며칠 앞서, 일본을 대표하는 한신문이 訂正기사를 실고 있다. 교과서문제를 다룬 기사중,「宗師改名」은「創氏改名」의 잘못이라는 정중한 내용이다. 틀려도 희한하게 틀렸다는생각이 들었다.

신문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니까, 잘못은 있게 마련이다. 독자들 앞에 내놓고 말하기는 멋구스럽지만, 사실이 그렇다. 그런줄을 체험으로 알기에, 남의 신문에 보인잘못을 내놓고 말하기는 좀 거북하다.

그러나, 여기「小見」과「宗師」를 말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일간에서나 있을 수있는 괴리의단면을 엿보게한다는데있다.

먼저「小見」은 약은기자의 아차하는 착각일 수가 있다. 그것이 석간에 와서 增幅된 것이라 짐작이간다.

그런데, 석간에 와서는「小見」이란 말에, 引用符 낫표(「」)를 쓴 것이 눈을 끈다. 그 뜻을 나는 이렇게받아 들였다.

—일본에서는 그런말이 있는모양이지만,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다. 외래어 대접을 해서, 引用符를 쓰자.

그렇다면, 이것은 한·일간에 특유한「그러려니의 착각」이다. 섣불리 漢字의 글뜻으로 판단하여 同文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일본신문의「宗師」도 잘못의 意識構造는 비슷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발음으로 하면「宗師」와「創氏」는 마찬가지「소오시」다. 전화송고를 받아 쓰거나, 영어 알파벳로 풀어쓴 텔렉스電文을 옮길 때 저지르기 쉬운 漢字표기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수신자인 기자는「宗師改名」이라 해놓고도,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않았을까. 이때, 그가, 한국에서는「創氏改名」을 그렇게 표기하는 모양이구나 했다면, 그도 역시「그러려니의 착각」과「同文의 함정」에 빠진 꼴이다.

이상은 물론 내 추측이다. 잘못의 원인은 보다 단순한 것—戰後世代의 漢字實力으로 돌려서 그만일지 모른다. 그러나, 두나라 신문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는데는 무슨 공통된 연유가 있을 터이다.

그것을 그러려니의 對日觀·對韓觀이라 여기며,「克日」을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아는가—생각해본다.

6·3사태의 反日물결이 일본연구의 불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못들었고, 文世光사건의 抗日데모뒤에, 일본을 알자는 기운이 일었던 것 같지도 않다. 교과서가 시끄러운 8·15아침에 명심할것, 그것은 그러려니만 해서는 일본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533·2361

제1회 교회음악 강좌

본 대학에서는 평신도 여러분들에 교회음악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 1회 교회음악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2년 8월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9시 50분까지 (5주동안)
◉장 소: 754 INDIAN RD. (오순절장로교회)
◉강좌내용: ▲성악-발성법, 발성연습및 지도(이주연교수 담당)
▲교회음악사-교회음악의 유래및 발달과정 연구(유회자교수 담당)
▲성가대운영론과 실제-성가대운영 방법론및 찬송가 해설(박재훈교수 담당)
◉참가대상: 교회음악에 관심이 있는분, 일반교우, 성가대에 봉사하는 분들.
◉등록일자: 1982년 8월3일 오후5시30분까지
◉회 비: 1인당 $70
◉등 록 처: 754 INDIAN RD. (본 대학 서무과)
◉문의및 연락: 762-1495, 493-8894, 745-7370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 신학대학(토론토 캠퍼스)

신·편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오니 사명있는 많은 분들의 응모있으시기 바랍니다.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득학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Div)	①수세후 2년이상자 ②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 석사 (M.Div)	①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서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A)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학사 (B.A)	①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교회음악과	①수세후 1년이상자 ②고졸자 동등이상자	4	교회음악학사 B. MUC.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교회음악석사	①음악학사 학위소지자 ②수세후 1년 이상자	2	교회음악석사 M.C.M	①음악목사코스 ②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제한 없음 ①수세후 1년이상자	2	수료증(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 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본대학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및 시험 장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전화: (416)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1982년 9월6일(월) 오후5시30분
3) 전화문의할 곳: 762-149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비서류: 1. 입학원서
2. 최종학교졸업증서및 성적증명서
3. 당회장 추천서
4. 사진 3매 (명함판)
5. 전형료 $50.00 (시험당일 지참)
★시험과목: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험일시: 1982년 9월6일 오후6시부터
시험장소: 본대학 강의실
6) 합격자발표: 1982년 9월6일 당일발표
7) 수업시간: 월, 화, 목 오후6-10시
8) 등록금: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교일시: 1982년 9월7일 오후6시(신입생 Orientation)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 박사(장로회 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Prof. of Drew Unv.)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뉘우칠줄모르는 侵略根性… 못버린「大東亞共榮圈의 꿈」

한국일보

특집판

나라의 줏대를 세우자

8·15 有感

趙 一 文

3·1精神과 上海臨政 공적을 되살릴때 自主獨立의지가진 國民만이 존경받아

1 3·1운동과 8·15

말할 것도없이 우리의 모든 애국운동은 민족 해방운동에 이어진다.

그중에서도 3·1운동은 8·15에 직결된다. 만일 3·1이 없었더라면 8·15는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3·1운동은 힘의 對決에서는 맨주먹의 絶叫가 총칼의 탄압에 침묵당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정신면에서는 한 민족의 유구한 역사, 정당한 요구가 결코 폭력에 의해 말살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넉넉하였다.

3·1운동에 나타난 국민의지의 결실은 곧 임시정부였다. 처음에는 국내외에 세개의 임시정부가 세워졌다. 漢城·露領 및 上海의 臨政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얼마 뒤에 上海臨政에 통합되었다. 各臨政은 저마다의 憲法을제정하였던 바, 그 공통점은 독립국의 선포와 民主共和체제의 선언이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발상이 아니었다. 유사이래 수천년 동안 王政이외의 어떤 정치형태도 경험한 일이 없는 우리가 아무런 유혈충돌 없이 君主로부터 民主로의 코페르니쿠스적전환을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實學·東學·開化 등을 거쳐 3·1운동으로 通合된 國民意識이 頹落한군주주의의 表皮를 깨고 새로운 生命體로 부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3·1운동은 단순한 민족적저항운동이 아니라, 민주혁명과 더불어 진행된空前의 국민적 大行進이었음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建國大총장>

2 臨政의 流轉

초기의 임시정부는 파리講和會議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번에 국제적 승인을 받고 국제연맹에 가입할 心算이었다. 그러나 베르사유 體制의 유지와 戰勝國의 이익 분배에 급급하였던 당시의 열강은 약소민족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겨를이 없었다.

한편 日帝는 韓半島를 발판으로 滿洲를 석권하고 다시 중국본토 침공을 개시했다. 國民政府는 「철저항전」을 외쳤으며 中共도 항일민족연합전선에 가담했다. 그러나 中日戰爭의 초기단계에서는 戰勝數는 항상 침략군 쪽에서만 올렸다.

국민정부는 奧地로 遷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임시정부도 전세의 추이에따라, 上海↓杭州↑鎭江↑長沙↑廣州↑柳州↑綦江을 거쳐 重慶에 이르는 처참한 流離漂泊을 해야만 했다. 서울로부터의 기나긴 流轉을생각한다면, 毛澤東의 소위 「大長征」도 아침식사전의 「조깅」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리라.

3 最惡에서 最善을

임시정부가 重慶에 도착한 후에도日本비행기는 연일 폭탄을퍼부었으며독립운동자의 생활은 암담하기그지없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최악의상황하에서 최선의투쟁방안을 강구했다. 그것은 곧 光復軍의 창설이었다. 물론 광복군이전에도 滿洲의 密林·曠野에서 목숨을 내놓고 적과 싸운 애국투사들은 헤아릴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임시정부의 지휘하에 행하여진 조직적 전투는 아니었다. 광복군은 불과 수백명의 少數隊伍였으나 임시정부 統帥下의 최초의 직속부대였다는데에 큰의의가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자 임시정부는 즉시 對日宣戰을 선명했다. 물론당시의 임시정부는 단독으로 對日戰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으나, 소수일망정 광복군을 연합전선에 투입함으로써 「기증된 독립」대신 스스로 「쟁취한 독립」을 얻고자 하였다. 연합국의 자비심에 호소하여 우리의 주권을 구걸하려는 것이아니라 스스로의 피로써 강탈당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그후 광복군은 中·英軍과 제휴하여 北은 萬里長城으로부터 南은 갠지즈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대일항전을 계속하는 한편, 미군과 합작하여 국내침투작전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광복군 復員宣言에 의하면, 구한말 국군해산이래 의병, 독립군및 광복군이 치른 투쟁은 大小戰役 6백40여차에 이르고 敵에게 희생된 義烈士는만여명을 헤아린다고 하였다.

한국 해방의 결정적 요인이 연합군의 승리에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3·1운동에서 보여준 국민의 강렬한 독립의지와 그계승체인 임시정부 및 그 휘하 부대의 희생적 투쟁이 없었던들, 8·15가 또하나의 「예속의 날」로 화하지 말란는 보장이 어디 있었겠는가?

4 革命大義 昭然

돌이켜보면 우리 임시정부는 장장 27년의 荊棘을돌파하고 艱苦를이겨낸 세계 최장의亡命政府였다. 비록 가난하고 취약하고 또한 내분에 얼룩진흔적이 역력하기는하였으나 조국광복을 위하여 生死榮辱을뛰어넘는 독립투사들의 革命大義는 照然하였다.

또한 임시정부는 한민족 반만년의 정치사상 최초의 완벽한 민주정부였다. 임시정부는 각지를 전전하며 대일항전을 계속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의회(議政院)중심의 民主共和體制를 고수했다. 그 기본정책은 均權·均富·均智의 민주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임시정부의 군사정책에는 비판의여지가 없지 않았다. 초기에는 임시정부 軍務部의 滿洲移動論議가 있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기지못함으로써 독립군의 關內(山海關이남) 이동의 길이 막혔다는 점, 후기에는 광복군의 창설을 더욱 앞당겨서 中日全面戰 발생시에 이미 참전했어야 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광복군을 조직하여 이를 독립운동의 基幹部隊로삼았다는 것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기어이 광복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낸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紀念碑的 의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5 3·1을 民國紀元으로

해방후 우리는 5·10선거를 통하여 새나라,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때에 만든 헌법과 그뒤에 고친 모든헌법은 3·1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1919년은 단지 「紀念의 해」일뿐, 「紀元의 해」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3·1운동의 유일한 嫡子로 태어난 임시정부는 지나간 역사의 한 單元으로 남아있을뿐, 사실상 그法統은 이어지지도, 존중되지도 않았다.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救國의 별」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들이 비운에 간것은 이제 忘却의 彼岸에 묻어둔다손 치더라도, 3·1운동과 그후의臨政史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것은 매우 섭섭하고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일이다. 대한민국의 새 역사는 마땅히 1919년3월로부터 시발되어야 할것이며, 정부의첫 章 또한 1919년4월 上海臨政의 발족으로부터 열려져야할것이다.

臨時議政院회의록에 의하면, 일제 투항직후 重慶에서 열린 議政院회의에서 일부 左翼系의원이 임시정부의 즉각해체를 주장한데 대하여, 金九主席은 『애국선열과 諸同志들이 지금까지 血淚로 지켜온 임시정부를 국민이 선출한 正式政府에게 인계하기까지는 결코 해산할수없다』고 한 답변 요지가 기록되어있다. 임시정부가 그장구한 세월, 모진 風霜속에서 어떻게 지켜졌으며 무엇을 志向하여 왔는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으리라. 광복절, 환희의 물결속에서도 우리는 선열의 매운뜻, 굳은 節介앞에 새삼 숙연해지지 않을수없다.

6 자주국민만이 강력한友邦을

필자는비록 제국주의日本이 우리의 宿敵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영원의 仇讐로 여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한·일간의 새로운 우의는 과거의 糊塗에서가 아니라 그 솔직한 반성위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을뿐이다. 한편 자주의 강조가 국제 협력을 해칠까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나 그것은 杞憂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러두고 싶다. 자주 독립의 강한 의지와 힘을 가진 나라만이 남의 존경을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줏대 있는 민족, 富強으로 치닫는 국가만이 강력한 友邦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만일 눈앞의 이해에 얽매여 毅然한자세를 흐트러뜨린다면 결국 자주도 협력도 다 함께 잃고 말것이다.

日本人 다시온다

8·15에 되돌아본 秘話

철수때 韓半島 재진출 노려

1945년 8월15일은 日本과 한국에 다같이 다가온 激變이었다. 그러나 격변에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그 文化隔差가 컸었던것처럼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

패전한 일본이었지만 그들은 明治維新이래 구사해온 『사시미칼』을 날카롭게 굴려가며 현실에서의 최선策을 찾아내고 있었으며 한국은 빼앗긴 들에 봄이 온것을 기뻐하며 그저 때가되면 싹이 돋을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은 식민지 35년간 너무나 세차게 짓밟혔다. 해방의 빛이 갑자기 내려 비춰졌을때 한국인들에게는 허리를 펄만한 힘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었다.

해방되던 그날 조선총독 아베(阿部信行)는 두가지과제를 안았다.

하나는 한국에대한 上典관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의 것이었고 두번째는 在韓日本人을 가능하다면 그 재산과함께 어떻게 안전철수 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적어도 메이지維新이래 일본인의 基本의식구조로 돼온 上下關係근성과 생존제일주의의 결과였다.

西歐국제정치학계에서 꽤 명성을얻고있는 기다무라·히로시 교수에의하면 일본인은 상대방을 대할때 상대방이 본인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우선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하관계관념은 개인관계에서도 나타나고 국제관계에도 표현된다.

상대방과 손을 잡을때 주저없이 눈동자를 움직이며 그 힘을 재본는것이 일본인의 버릇. 이런 上下관념을 루드·베네딕트는 『菊花와 劍』이란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다.

상대방을 예리한 저울추로 재 본후 자기보다 힘이 세면 모든 체면을팽개치고 철저한 복종으로 나가고 약간 저울추가 자기쪽으로 기울어지면 여지없이 劍을 휘두르는것이 일본인의 생리구조란것.

국화와 劍을 分秒가 다르게 바꿔가며 세상을 살아가는것이 일본인의 천성으로 돼버린셈이다.

日本식민자들은 8월15일 天皇不落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급격히 한국인에대한 上下관념을 바꿨다.

조선총독부 政務총감 엔도(遠藤柳作)는 지난35년동안 개처럼 멸시하고 짓밟던 한국인을 찾아 일본인의재산과 생명을 보호해달라고빌었다.

총독 아베와 政務총감 엔도가 宋鎭禹에게 처음 日本의 재산과생명을 빈 것은 8월9일로 돼있다. (中央選擧管理委편 大韓民國政黨史)

이때쯤 『大日本帝國』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美軍B29機가 떨어뜨린 原子彈폭격을 받아 정신을 잃고있을때였다. 日작전사령부인 大本營은 美軍의 제주도 혹은 日本本土상륙에 대비하여 죽창까지들고 玉碎戰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데 결정彈은 바다가 아닌 공중으로부터 내려왔던 것이다. 항복이 확실해졌다.

韓半島를 서슬이 시퍼렇게 불호령하던 總督 아베는 『본의는 아니나 신문을 통해 日帝에 협력한』(宋建鎬著·韓國現代史) 古下 宋鎭禹에게 머리를 숙여 항복후의 치안유지책임을 맡아달라고 빌었다. 古下는거절했다.

상해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을 기다린다는 명분도 있었고 정세추이를 지켜보면서 처신하는 機會主義者의 면모도 있었음직하다. 아마 섣불리 日帝의 치안유지갈루제의를 받아들였다가는 그렇지않아도 親日派라는 일부 비난이 굳어져버릴 위험도 컸던것이다.

식민지정부는 東亞日報주필을 지낸 東京帝大출신 金俊淵에게 다시 손길을 뻗쳤으나 역시 거절당하고 세번째로 呂運亨에게 치안유지權 이양을 사정했다. 夢陽 呂運亨이 政務總監 엔도의 제의를 받아들인데는 적어도 2가지 추측할만한 이유가있다. 하나는 解放前 정권수립을 위해 착실히 정치조직을 키워왔다는것. 日帝末 中日전쟁이 터지고(1937), 日本軍의 진주만공격이 있고(1941), 韓半島에 創氏改名令이 선포되고(1940)·그리고 학병지원권기대회(1941)가 열리면서 한국의 민족운동은 씨가 마르고 있었다. 총독부의 세찬 朝鮮魂말살정책에 따라 그나마 抗日자세를 지탱하던 민족주의자들도 대부분 고향으로 내려갔거나 감옥신세를 지고있었다.

이때쯤 趙炳玉은 日帝의 고초를 견디다못해 숭실학교다니던 아이들까지이끌고 고향인 忠南天安郡龍頭里로내려갔다.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이 民衆의희망과기대를걸머진채 日帝앞잡이로 돌아서던때도 이때였다. 李光洙, 崔南善등 허다한 민족주의자들이 反民族주의편으로돌아섰다.

이런침울하고 캄캄한 情況속에서도 呂運亨은 『해방이 눈앞에 다가온것』을 확신하고 정치조직을갖추었다. 1944년8월 趙東祜, 金鎭宇, 李錫玖등과 사생을결단하고 建國同盟(建盟)이란 정치조직을 결성했다. 建盟은 그발악적인 식민지末期를제망을헤치면서 순식간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됐다. 朴承煥, 李永善, 李相伯등은 呂運亨의해외연락책으로활약했다.

이해가을 金容基 崔龍根 文觀등과 함께 전국적조직을한 農民同盟역시 呂運亨의 강력한 정치기반이었다.

呂運亨의 동생 呂運弘의 서술에 따르면 呂運亨이 정무총감 엔도로 부터 치안유지권이양제의를 받은것이 8월14일이었다.

呂運亨의 집에 불려간 呂運弘등을 향해 呂運亨은 『조금전에 遠藤이 사람을 보내어 내일아침 8시에 자기관저로 와달라고 했다』고 말하고 洪璡植에게 每日新報社를 접수할것과 呂運弘에게 방송국을 점령하여 우리말과 영어방송을 할것을 준비시켰다.

15일 날이 밝자 呂運亨은 경성서비스를 경영하고있던 鄭亨默이 대기해준 검은세단을 의젓이 타고 筆洞으로 엔도를 방문했다.

趙東祜의 논문 『8·15직전의 독립운동과 그 試鍊』에 의하면 이때 엔도는 呂運亨에게 『일본은 패배했소. 당신은 치안을 맡아주시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명이 당신에게 달려있소』라고 말했다.

呂運亨에게는 과거보다는 앞날이 중요했다.

이미 呂運弘과 洪璡植에게 새독립국가의 첫 성명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준비시킨바있는 呂運亨은 과거의 시비를 가리지않고 엔도의 생명부지願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이 당면한 5가지문제의 해결을 日人생명보호조건으로 내세웠다 ①정치범·경제범을 즉각 석방하라 ②서울시민을위한 3개월분의 식량을 확보하라 ③치안유지사업에 일체 간섭말라 ④학생훈련과 청년조직에 간섭치 말라 ⑤일본노무자들은 협력하라는것.

呂運亨이 엔도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두번째 이유는 식민지35년간을 두고 그의 몸가짐이 깨끗했다는 것이다.

呂運亨은 해방그날 치안을 맡을 建國治安隊를 조직하는한편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16일에는 建國준비위원회부위원장 安在鴻으로하여금『국내질서를 유지하라』는 내용의 전국방송을 하게했다.

해방2일간은 6만의 精銳軍과 방대한 경찰조직을 그대로 갖고있던 일본식민정부가 眞空에 떠오른 가느다란 呂運亨조직에 생명안전을 잘도 의지하고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上下關係개념에 빠져있는 日人들의 한 뒷모습이었다.

그러나 하루뒤인 8월16일 조선총독부는 태도를 표변했다.

조선군관구 이름으로『管內일반민衆에게 告함』이란 포고문을 발표하고『민심을 교란하고 조금이라도 치안을 해치는 일이있다면 軍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명했다.

이때 慶北星州경찰서에서 석방됐던 心山 金昌淑은 민족투사들이 다시경찰에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등에 업혀 성주경찰서를 찾아 항의했더니 경찰은『상부의 명령』이라면서 『선생도 제발로 걸어왔으니 잡아넣을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재체포했던것이다. 日人은 그들이섬길 주인은 따로있다는것을 알았던때였다.

上下의식에 철저한 日人들 살길찾아 재빨리 美에 붙어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며 이聯合軍에게만 복종하면 한국인은 계속 밟을수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직하다.

식민정부는 美·蘇진주군의 동태를 빠른동작의 눈동자를 열심히 굴려가며 35년식민통치의 범죄적행위에대한 서류를 착실히 불태우는한편 다시있을지도모를 韓半島진출을 위한 자료는 챙겼다. 조선광업자료는 일본이 한반도재진출을 위해 가져간 자료의 하나였다.

어떻게든 살면된다는것, 그리고 할수만있으면 이겨야한다는것, 이것이 日本人의 思考저변이며 어떻게 살아야한다든가, 어떤 가치관이 목표라는 것들은 사실 망각해온 것이다.

헨리·키신저 前 미국무장관은 日本人을 가리켜 개념(Conception)이 없는 국민이라고 말한바있다.

좋은것과 나쁜것, 善과 惡의 개념이 없으며 어떻게든 발전하고 이기기만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日本京都大學교수 고사까·마사따까는 美週刊誌 「뉴요커」와의 회견(1975년8월4일字)에서『일본은 開國이래 쉴새없이 변화적으로 밀려드는 서양세력을 맞으면서 오직 살아남아야한다는 결론만을 얻었기때문이다』라고 日本人의 無개념성을분석했다.

일본정부는 敗戰이후 점령군에게 日本女子들이창녀로 바쳐지는길을 터놨으며 1952년의 한집계에 따르면 이런 日本女子들이 벌어들인 돈이 한해에 2억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日本女子들은 전후에 등장한 첫기업인들이었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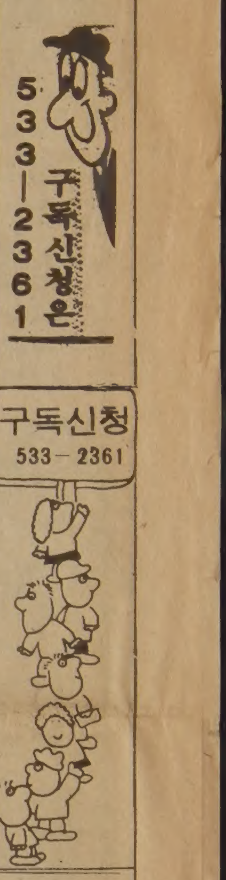
고사까교수는『日本人들은 전쟁기에 저지른 범죄를 죄악으로본다는 눈이 없다』고 스스로 통탄했다. 日本은 전쟁후 37년을 지나면서 上下關係의식과 생존제일주의의 思考저변을갖고, 다시 지난날의 『大東亞共榮圈』을 넘보고있는지도 모른다.

그 뼈대는 8·15~9월8일 미군의 仁川상륙사이에 씨앗을 뿌렸던게 분명하다.

〈鄭逸和기자〉

◇만세의 함성 가신지 37年

광복의 기쁨에 들뜬 민중들。45년8월15일 西大門형무소에서 석방된 정치범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있다。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40년만의「光復」

집단抗日「蔚珍暢幽契員」22명 寃魂풀다

功績밝혀져 뒤늦게 19명 大統領표창

共産黨누명 儒生 떼죽음

겉으론 漢詩모임…은밀히 獨立운동하다 被檢

【蔚珍=申鉉鈺기자】「暢幽계원옥사사건」의 주인공 19명이 39년만에 독립유공자로 대통령표창을받아 유족의 恨이 풀렸다.

暢幽계원옥사사건은 1943년 경북蔚珍군내의 유생(儒生) 22명이 항일투쟁을 벌이다 이중 16명이 옥사하거나 맞아죽은 사건으로 蔚珍일대에서는 유명한 사건이었다.

이들 독립유공지사들이 그동안 표창을 받지못했던것은 당시 일본경찰이「용공사회주의단체」라고혐의사실을 날조함으로써 그간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유족들은「너무나 억울」해서 大邱교도소의 폐기물창고를 뒤져「暢幽계사건판결문」을 찾아 보충자료로 제공한데다 독립유공자심사위원인 朴成壽교수(50·崇義여전문)등 조사관의 현지조사로 이들의「혐의」가 무고로밝혀지고 공적이 입증돼 뒤늦었지만 표창을 받게되었다.

유족들은 한결같이『독립유공자 집안이 된 사실보다는 선조들의 높은뜻이 밝혀지고 용공사상운운하는 누명을 벗겨드려 후손된도리를 다해흐뭇하다』고 입을모았다.

일제말엽인 1941년 가을,蔚珍군내의 井林,湖月,杏谷里등 7개마을 유생22명이 湖月里 陶谷亭에 모여「친목계」를 조직했다.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이자 당시 이지역의 유학자 南彰永선생은『群賢이 蘭亭에 모여 즐기니 그윽한 정(幽情)이 족히 펴지더라(暢敍)」는 옛중국 晋穆帝의 고사에서두글자를 따서 暢幽會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시를 읊으며 정담을 주고받는 계모임은 2년동안 한달에 한번씩 빠짐없이 열렸다.

모임이 계속되는동안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하리라는 소문과 함께『일본군을 몰아내고 내고장을 되찾는것은 우리들이 할일』이란 자각이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곤했다.

1943년 1월 모임에선 계원 南源壽를 만주로 보내 上海임시정부의 동향을 탐지해오도록 했다.

이해 3월 蔚珍郡北面梅花里 尹大奎 계원집에서 가진 계모임에서였다.

당시「이간백정」으로 악명높던 蔚珍경찰서 고등계형사 李光鎬가 스며들어 계원의 명단과 동태를 살피고는 서장 나까도미(中富)에게 큰 공이나 세운 듯이 보고를 했다.

당시 일본경찰은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인들이 봉기하여 자기들을 몰살시키리라는 우려에서 한국청년들의 동향에 깊은관심과 함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던때라 南源壽를 제외한 21명전원이 즉각 체포당했다.

한편 형사 李光鎬는 만주로 즉각 건너가 2주일만에 吉林에서 南源壽도 체포해왔다. 일경은 蔚珍경찰서 유치장과 연무장에다 잡아온 청년들을 집어넣고 수갑을 채운채 커다란 원목에 방줄을 매 결박한 다음 검은 보자기로 머리를 덮어씌우고 혹독한 고문을 하기시작했다.

피의拷問…16명 獄死

나머진 산송장으로 光復후 숨져

7마을 恨서린遺族…代끊긴 집도

나체에 전기줄을 엮어매 심철을 녹이며 문초하는 전기고문, 공중에 매달고 수십번돌려 정신을 잃게한후 목총으로 난자하는 비행기고문, 세모난 장작위에 무릎을 꿇리고 구둣발로 내리밟는 진압고문, 생손톱을 뽑아내는 고문에다 성기에 지심을 박아넣는 인도상 용납못할 잔학한 고문을 하루3~4차례씩했다.

이들에게 씌워진 죄명은「공산당을 조직하여 무산(無産)혁명을 일으키려했다」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당시 주민들은 경찰서안에서 벌어지는일을 알수도 없었지만 누군가에의해 검은보자기를 둘러쓰고 고문당하는 광경이 목격되어 뒷날까지 이사건은「흑두건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됐다.

18개월간 蔚珍署에서 고문을 당하는 동안 崔晃淳 南志學 南源壽 李斗淵 田元江 田萬秀등 6명이 숨지고 나머지16명은 大邱검사국으로 넘겨졌다.

경찰서에서 방출음이 된채 검찰에 넘겨진 16명은 다소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했지만 大邱의 사상담당검사 하나오까(花岡)는 더욱 잔인한고문을 계속했고 이곳에서 張世銓 尹大奎 田炳璜 南石順 朱永錫 尹宗洙 張永俊등 7명이 검사국에서 또 죽어갔다.

나머지9명은 광복을 목전에둔 45년5월 大邱지방법원 일인판사에 의해 징역3~8년을 선고받고 大邱형무소에서 복역중 盧夏淳 朱鎭煜 南初伊등 3명이 또 사망했고 남은 林時憲 崔孝大 南精奎 朱尙俊 崔洲憲 南容渥등 6명만 산송장이된채 8·15광복을 맞았다.

8월16일 이른아침 대구의 李寬濟씨(광복직후 大邱자치위원장)가 찾아가 옥문을 열어젖혔을 때 이들6명은 너무 쇠잔한 몸이라 걷다가 쓰러지고또 걷다가 쓰러져 길가는 행인들도 눈물로 옷소매를 적셨다.

李씨등의 도움으로 大邱東山병원에 입원한지 한달만에 향리에 돌아온 6명의생환자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40대이전에 거의가 요절하고말았는데 어느 생환자는 집에 돌아온지 사흘동안 물을 토해내고 죽어가기도했다.

지금 22명의 창유계원집안 가운데는 후손이끊겨 滅門된 집이 두집, 친자식이없어 양자를 들인 집이 6집이나된다. 지난날 이지방에서 집안좋고 글잘하고 인물좋은 청년들의 모임으로 선망의대상이 됐던 창유계원들에 비해 그후손들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슬픈 삶을 살아왔다.

이들 유족들은 62년부터 80년까지 5차례에걸쳐 실시된 독립유공자 찾기사업에 빠지지않고 신청을 했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탈락이었다.

창유계원들이 독립유공자가 될수없었던 이유는 그들이「공산당의 무산혁명을 기도한 단체」였다는 일본경찰의 날조된 혐의사실에 근거한것이었고 이를 부정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것이었다.

참다못한 유족들은 66년3월15일 大邱교도소의 폐기물창고를 뒤져「창유계원사건 판결문」을 찾아내 보충자료를 제공했지만 68년,77년,80년등 3차례의 추가포상심사에서도 계속 탈락했다.

올들어 광복후 6번째로 실시된 독립유공자 찾기사업에 앞서 유족들은 다시 관계요로에 진정과 함께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지난4월 독립유공자 심사위원인 朴成壽교수(50·崇義전문대)등 조사팀이 현지를 찾았다.

이들은 유족이 아닌 지방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들은결과 창유계가 용공단체와 전혀 무관하다는 확증을 얻어냈고 광복37주년을 맞아 새로 발탁한 독립유공자의 대열에 19명의 창유계원이 무더기로 끼이게된 것이다.

井林里, 潭陽田씨의 집성촌인 新花里, 坡平尹씨들이 많은 梅花里등 蔚珍의 7개마을 창유계원들의 자손들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뒤늦게되찾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기쁨을 길이새기고 고인들의 숭고한 넋을기릴 기념사업을 벌일 채비를 하고있다.

◇유별난 光復節감회…바로 저기가 暢幽契員들이 젊음을 토로하던 서당을 찾아 선인들을 얘기하는 유족들(右로부터 南重學씨·南基永옹·南文烈씨)。

◇창유계원 유족 林大奎씨(63)가 가리키는 잔혹한 고문현장。지금 蔚珍경찰서 마당이된 이곳에서 22명의 계원들은 검은보자기로 얼굴이 가리워진채 무참한 매질을 당해 6명이 숨져갔었다. 【張啓文기자 찍음】

死亡·실종 23명…被害 4억

颱風세실 滿洲로빠져 농작물엔 큰도움

우리나라 서해안을 빠져나간 제11호 태풍 세실의 영향으로 14일 하오5시 현재 전국에서 23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가옥20여동이 부서지는등 4억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그러나 태풍세실은 지난12일부터 전국에 골고루 많은 비를 내려 농작물은 물론 댐에 물을 채우고 식수난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중앙기상대는 태풍세실이 14일 하오3시현재 서해白翎島 북서쪽 1백30㎞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화된채 느린속도로북상,이날 밤12시께 만주쪽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태풍권에서 벗어나겠다고 전망했다.

기상대는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린다는 말복(末伏)이자 광복절인 15일에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내리는등 오는 17일까지는 태풍 세실이 변한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권내에 들어 전국이 흐리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내륙과 산간지방에는 곳에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되나 남부지방부터 서서히 날씨가 개 29~30도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될 것 같다고 예보했다.

지난12일부터 14일 하오4시현재까지 내린 지방별강우량은 다음과 같다。단위=㎜。

▲忠武274·6▲大邱240·5▲蔚山216·8▲麗水192·6▲濟州154·4▲光州90·6▲木浦56·4▲全州32·9▲浦項92·6,晋州187·4▲부산87·1▲江陵22·1▲春川30·2▲東草33·8▲大田54·4▲淸州36·1▲서울31·7▲仁川62·5▲수원30·5

山무너져 내려 버스굴러 셋숨져

▲14일 상오8시10분께 昌原市梁谷洞 馬鐵터널입구 1㎞지점에서 산사태가나 와이어고장으로 서있던 영남5아2404호 시내버스(운전사 최도성·28)를 20m남짓 떠러지로 밀고내려가면서 언덕밑에있던변홍식씨(50)집등 4채를 덮쳐 변정일씨(25) 등 마을주민 3명이 숨지고 시내버스 안내양 박태숙양(25)과 승객1명등 2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승객등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사태…一家族참변

慶南·北·濟州 곳곳 침수·溺死·가옥파손등

▲14일상오7시께 경남陝川郡妙山面安城里 평촌부락 뒤 속칭 가지봉山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평촌부락을덮쳐 이마을 鄭在赫씨(53)일가족 3명등 5명이 숨지고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이마을 40여채의 가옥중 鄭씨집등 7채가 전파되고 6채가 반파됐으며 나머지 집들도 대부분 피해를 입었다.

陝川

이날 사고는 해발8백여m의 가지봉山 중턱에 밤나무를 심어 개간한 밤나무 밭에서 폭우로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1백여m떨어진 평촌부락을 덮쳐 일어났다.

이 산사태로 鄭씨 집과 이웃 신필봉씨(55) 李정희씨(50) 집등은 바위와 흙더미에 짓눌려 주저앉았으며 다른 집들도 서까래가 내려앉거나 기둥이 빠져 무너졌다.

▲14일 상오6시께 경북永川郡淸通面五樹里 속칭 오수천에서 양수기양작업을 하던 이마을 세명식품조림공장 종업원 孫진호군(17)등 3명이 홍수에 실종됐다.

▲13일 하오6시께 北濟州郡涯月邑古城里 속칭 암내다리에서 오던 좌대성씨(34·涯月邑古城里1322)의 2남 장철군(6)이 급류에휩쓸려 실종된것을 비롯,2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西歸浦항 방파제 98m중 70m가 유실되는등 모두 4억2천1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光復節 37돌 오늘 紀念행사

정부는 15일상오 광복절제37주년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과 각지방에서 광복절행사를 거행한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되는 광복절경축행사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차관급이상의 인사, 정당대표및 간부, 주한외교사절, 해외교포를 비롯한 각계인사 4천명이 참석한다.

木浦 醫保보험료 再調整

異議신청 쇄도

보사부는 지난7월1일부터 실시되고있는 木浦지역2종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진정과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해 이미 책정된 보험료를 빠른시일내에 재조정토록 14일 당해 의료보험조합에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반드시 조정위원회에 넘겨 심사후 조정해주거나 또는 심사결과를 당해 세대에 통지해주도록 했다.

木浦지역 2종의료보험조합측에 따르면 이날현재 木浦지역민들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4천9백22건으로「자산항이 과다하다」가 3천1백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소득항이 과다하다」가 9백77명,「등급격차에 불만」이 7백54명,「무조건거부」4명이 순이었다. 【광】

親舊유인해 毒殺

맥주에劇藥 부인엔돈요구

【釜山】부산 東萊경찰서는 14일 외판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친구를 자기집으로 유인해 독살, 암매장한 鄭辰萬씨(42·부산시影島區靑鶴2洞140)를 살인및 시체유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 8일낮12시께 東萊區巨堤2洞1260의15에서 야쿠르트巨堤대리점을 경영하는 친구 李壬珠씨(41)를 전화로 자기집까지 불러내 극약을 탄 맥주를 마시게해 살해한뒤 李씨의 부인 朴모씨(38)에게 10차례나 협박전화를 걸어 현금7백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실패하자 숨진 李씨를 대형 전축박스에넣어 용달차로 경남金海郡長山面松亭里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이다.

鄭씨는 범행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민하다 이날하오7시께 술에 만취된채 東萊경찰서에 자수, 경찰은 이날10시30분께 金海 松亭리야산에서 李씨의 시체를 발굴했다.

범인 鄭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2월까지 東萊구소재모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외판원으로 근무해오다가 실직 빚에 쪼들리자 3년전 시계월부외판원으로 같이 일했던 李씨에게 돈3백만원을 빌려달라고 3차례나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李씨를 살해한후 돈을 뺏으려 했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광】

高速道서 重機굴러 운전사등 2명숨져

【大邱】13일하오1시55분께 경북漆谷郡 枝川面 蓮湖洞앞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서울동주기소속 부산9사1397호 대형트레일러(운전사 성정경·35)가 6m언덕아래로굴러 운전사성씨와 운전석 옆에있던 30대남자1명등 2명이 그자리서숨지고 차체가 대파됐다.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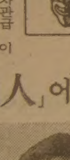
이달의 民防衛훈련 下旬에 燈火관제도

내무부는 매월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날훈련을 이달에는 하순으로 연기, 야간등화관제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번 등화관제훈련은 전국50개 시지역과 麗川·半月공단 그리고 18개주요읍지역에서 실시된다.

VIP 金浦공항 귀빈실의庶民 池明鉉씨

"國威떨친「普通人」에도 開放돼야"



VIP(귀빈)의 영고성쇠는 無常하다.

金浦공항귀빈실장 池明鉉씨(45·사진)는 지난 16년간 귀빈실을 드나드는 국내외 온갖「귀빈」수발을 해왔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까지 단한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귀빈실의서민이다. 요즘같은 삼복더위에도 늘 흰 와이셔츠에 검정양복을 입고, 일요일에도 뜨고 내리는 비행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귀빈 시중을 들고있다.

공항의 귀빈실은 장·차관급이상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리, 국회의원등 입법부인사, 이에준하는 외국인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池실장은 지금까지 국가원수급귀빈만도 32명을 모셨고, 국내외의 웬만한 실력자들도 거의 池실장의 시중을 받았다.

「귀빈」의 얼굴은 수시로 바뀌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이들 귀빈들의 출입시마다 몰려드는 출영객들.

귀빈도 가지가지. 귀빈다운 위풍을 과시하며 입국하던「귀빈」이 귀빈실 앞에서 세관원이 휴대품 검사를 하려고 덤비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싹해지는 사람도 있고, 탤런트쪽을 향해 달아나는 사람도 있었다. 한때는 아프리카에서입국한 검은「귀빈」이 귀빈실안에 깔린 붉은 카펫트에 질려 신발을 벗어들고 들어와 池실장은 이 검은「귀빈」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자신도 신발을 벗어버리고 시중을 들기도했다.

거드럭 거리며 목을 뒤로 제치기를 좋아하던 옛날의 귀빈에 비하면 요즘귀빈들은 비교적 목을 바로 세우고있고 또 힘도 빼고있다는 것이다. 그대신 귀빈실직원들에게 팁으로 돈봉치를 집어주던「구닥다리 귀빈」들은 이제는 몽땅 없어졌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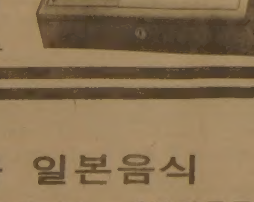
池실장은 이처럼 상냥해진 귀빈들의 출입국 스타일에서 시대의 변천을 느끼고있다고 한다. 이젠 관직이 없는 국보급 예술가나 국위를 선양한 보통국민들에게도 귀빈실문호가 개방되었으면 좋겠다는게 그의 염원이라한다. 【李鎭기자】

두꺼비 안의섭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서울하우스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짬뽕 · 냉면 / 짜장면 · 잡탕밥 전문
615 BLOOR ST. W.
☎: 532-0602
※일요일은 휴업
김 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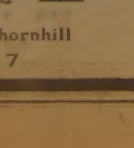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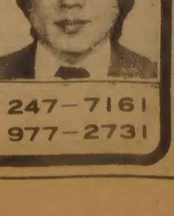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889-9757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게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安重根의 伊藤博文 살해 「暗殺」아닌「獨立戰爭행위」

서울大 愼鏞廈교수의「마쓰노妄言」반박

『安重根의사는 절대로 암살자가 아닙니다。순국선열의 의거라해서 미화하려는것이아니라 그가 거사전과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의연한행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있읍니다』 국내에서 安重根의사연구의 1인자로 통하는 愼鏞廈교수 (서울大) 는 첫마디부터 어조가 높인다。최근 日本의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 국토청장관 (74) 이 『한국교과서가 이토오·히로부미 (伊藤博文) 를 원흉이라고 부르면서 암살자인 安重根을 영웅시하고있다』는 망언을 한데따른 충격이 가시지않은 표정이다。

"宣戰포고지역에 들어온 敵의 首腦 砲殺한것"

재작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安重根의사의 사상을 정리한 「安重根의 思想과 國權恢復運動」이란 장문의 논문을 발표한바있는 愼교수는 열띠면서도 조리있게 마쓰노의 망언을 반박해 나간다。그는 安의사가 재판과정에서 말했듯 이토오를 암살한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교전중 포살했다고 말한다。安의사가 의거후 『…나는 개인으로 남을 죽인 범죄인이 아니다。나는 大韓國의병참모중장의 義務로 소임을 띠고 하르빈에 이르러 독립전쟁을 일으켜 이또오를 살해한뒤 포로가 되었다。安의사는 이 포로들을 萬國公法에 따라 석방시켰다。그의 …

[illegible]

병력 있었다면 海上에서라도 攻擊
잡은日軍 국제法따라 석방한 일도

"敵軍죽인사람을 暗殺者라고 할수있나"

[illegible]

◇1910년 3월26일 旅順에서 순국하기 5분전 安重根의사의 의연한 모습。「東洋平和論」을 집필중 순국했던 安의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의병중장이므로 정당한 포로대접을 해줄것』을 역설했다。

[illegible]

【宋大洙기자】

日、「歪曲」再修正 불가피 認定

스즈끼、文部省에 방법강구등 지시
黨內반발 우려 時間끌며 작업할듯

【東京14日=宋孝林특파원】 일본정부는 외교문제로 번진 교과서문제가 어떻게 든 조기에 해결되도록 …

[illegible]

外國人들이 보는 安重根義士의 人格·행적

中國에서는「英雄」 日人들까지 흠모

[illegible]

中國 3년간 演劇上演… 자주독립 敎科書로
日本 교도관후손들 지금도 위패놓고 분향

[illegible]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190>

양 달 ㉕

[illegible]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주일오후 2:00 유년중고장년모임 : 3시 20분	662 Pape Ave. Tor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621-6340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적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선교교회	강제철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8:0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498-7960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한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일오후7시30분	1239 Jane St.& 1384 Weston Rd.	248-4130 233-2266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일요오후 2:0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전11:0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7:30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68 Collinson Blvd. North York	755-9766 636-1724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961-8361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수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446-1211
키치너 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V. 예배 8:30~9:00A.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메시아한인교회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오전)토,수요예배오후 8	1580 McCowan Rd.	298-1876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하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 · 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도너스숍에서 풀타임 일하실 여자분구함
시간 오전7시–오후3시(월–금)
Victoria Park & Steel (B)499–4459 (R)299–1431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Mr. 모리

가정 재봉사 구함.
영어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전화 : 633–2748 Mrs. Gold (토요일에는 전화사절)

도미니언 도나스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구함
(칼레지×영 써브웨이스테이션 건물안)
직접 내방바람.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경험있는 Helper 구함.
(GreenWood & Queen)
전화 : 466–3995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도넛츠 가게에서 풀타임 밤일하실 여자분 구함.
11 p.m~8 a.m. (Rexdale×Kipling)
전화 : 743–3822, 222–387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파트타임 캐셔와 헬퍼구함.
15 Queen St. E. 전화: 364–4054
직접 내방바람.

베비시터

바쁘신 분들을 위하여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보아드리겠읍니다. 원하시면 24시간(월 9:00~토 7:00까지)도 가능하며 저희가 데리고오며 데려다 드립니다. 전화 : 651–5388 Mrs.채

입주하셔서 아기 보아주실분 (4살, 1살)
전화 : 447–1460

입주하셔서 애기봐 주실분
3871 Lawrence Ave. E.
전화 : 431–7168, 439–6428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여권

여권번호 : MB–137650
성 명 : 이 순자
연락처 : 742–1281 (Mrs. Lee)

집렌트

방세놓습니다. 565 Pape Ave.
2층 전체 월 : $350
전화 : 591–6863, 438–4519

매매

여자용 여름용 한복 급매
한벌에 125불
전화 : 769–4366, 김 (오후6시이후)

(1)건물(Bloor & Christie) $159,000
(2)Coin Laundry & Building $159,000
(3)Variety Store: 주매상 $8,000(스카브로)
(4)Variety Store: 주매상 $4,000+Video(Hamilton)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Canada Permanent Trust Co.

여자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스킹 $15,000+스탁 2층에 2베드룸 있음.
전화 : 536–6250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7,000.
리스 :6년. 렌트 :$1,260. 1,600 sq.Fit
계속 번창하는 지역임. 전화 : 686–0155

4 Door, Walk–in–Cooler and Water Cooling System Air Conditioner팝니다.
전화 : 233–2195(B), 233–0732(R)

개인 레스토랑 매매.(레스토랑 + Tavern)
좋은 위치. 좋은 비지네스. CN타워 근처.
300,000 Turn Over a Year. 주5일 오픈.
아스킹 : 179,000. 다운 : 75,000. 12년 리스.
더원하시면 가능함. 아주 흥미있으신 분만 연락바람.
전화 : 596–6706 (Jimmy)

버라이어티 가게매매.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렌트600불. 전화 : 266–7833 (Mr. 김)

Private Sale (Tailoring Store & Building)
Good Location & Good Opportunity
Phone : 533–3888 (Anton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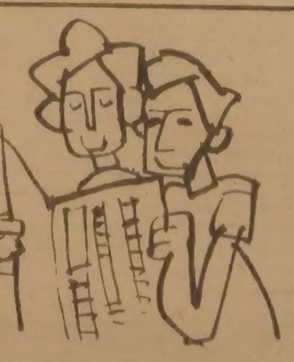
Fish & Chips for Sale
주 5일 영업.(Mon.–Fri.: 10:00a.m.–4:00p.m.)
주매상 : $4,000 아스킹 : $179,000 전화 : 759–4761 (Vasos)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Ossington & Bloor)
적당한 가격으로 팔 예정.
전화 : 531–5005(R) 531–1023(B) (Yoly)

(1)시간 짧은 Driving Hamberger Place
주매상: $8,500. 렌트: $1,700. 리스: 1985=5년옵션.
(2)주매상: $6,000. 렌트: $1,800. 리스: 1989+5년옵션.
Mrs. Woo. 전화 : 741–9170(B). 851–4717(R)
A.E.LEPAGE(Ontario)Ltd. Realtor.

Store Equipment for Sale
Dairy Box 1, 후리저(컴프레샤 포함)
전화 : 844–5719

◉가게 12만달러 15%모기지. 교통이 바쁜 지역에 2 베드룸 아파트. 최고조건. 주차장이 있고. 빈가게를 인수됨.
◉아파트 빌딩 : 7동. 2층벽돌집에 주차장과 3개의 벽난로 있음. 연수입 : $25,452. 아스킹 : 200,000.
Call Doris Burda 763–5555
Cholken Real Estate.



고국소식이 궁금하십니까?
한국일보를 구독하십시오.
원하시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독신청:
☎ : 533–2361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퍼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